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인 유학생 킥스타터에 난방텐트 제품올려 호평

런칭 23일 당초 목표 두배넘는 2만여불 투자 유치
매시추세츠 주립대 입학 앞두고 갭이어 선택
입학전 의미있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인 여학생이 소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com)에 올린 실내 난방텐트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소은 양(19세)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광장히 재미있고 뿌듯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 양은 킥스타터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3일만에 당초 목표였던 1만불의 목표를 훨씬 뛰어 넘는 20,119불의 약정을 이끌어 냈다. 미국인은 물론 일부 한인들도 약정에 참가했으며 미국에서도 이것을 구입할 수 있어서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에 보스톤으로 이민 온 박 양

은 올해 보스톤 인근 브루클라인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앰허스트) 입학 전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1년간 갭이어(Gap Year: 입학을 1년 연기하고 쉬는 것)를 선택하고 실내 난방텐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박 양은 “한국도 춥지만 한국 못지 않게 추운 보스톤에 살았던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 밝혔다. 실내 난방텐트는 몇 년전부터 한국에서 겨울 방한용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며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면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박 양은 “과거 한국 엄마들이 아기를 업을



올해 브루클라인 하이스쿨을 졸업한 박소은 양이 킥스타터 비디오투를 통해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때 사용하던 포대기가 해외 엄마들에게 Po-daegi 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며 “포대기가 아기와 엄마간의 친밀감을 극대화 해주는 슬기로운 문화”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포대기를 손쉽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는 박 양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난방텐트 문화를 미국으로 접목하게 됐다. “난방텐트 문화 또한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국만의 슬기로운 문화”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2면으로 계속

참이슬
소주값
미국에선
안올린다



(LA=미주헤럴드경제) 최한승 기자 = 하이트진로는 3년만에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의 한국내 출고가격을 병당 %1.70원에서 1천15.70원으로 54원 인상했다. 내년 1월말부터 빈 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이 77원이 더 오를 것을 감안하면 실제 출고가는 130원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한국 출고 소주가 가격이 130원 가량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내 유통업체에서는 소주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인만큼 종전 2.99달러인 마켓 소매가격이 최소 3.99달러 또는 4달러 이상, 식당에서는 평균 8~9달러 가량에 판매되는 가격이 9~12달러 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일 하이트진로 미주법인 케빈 강제너럴 매니저는 “한국 출고가격이 오르면서 미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law.com



From \$950 ONLY 1 STOP

2016년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950는 일본항공(JAL) 요금입니다.
출발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기한은 1월 5일까지입니다.
여행일정, 이용항공사, 실시간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
기중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실내 침실용 텐트, 한국과 미국에 특허 출원

▶▶1면에 이어서

텐트 제작은 아버지가 아이캠퍼(ikamper)라는 루프탑 캠프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박양은 시중의 난방 텐트의 장단점을 분석해 디자인을 했으며 아버지 회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룸인룸(Room in Room)이란 킥스타터 제품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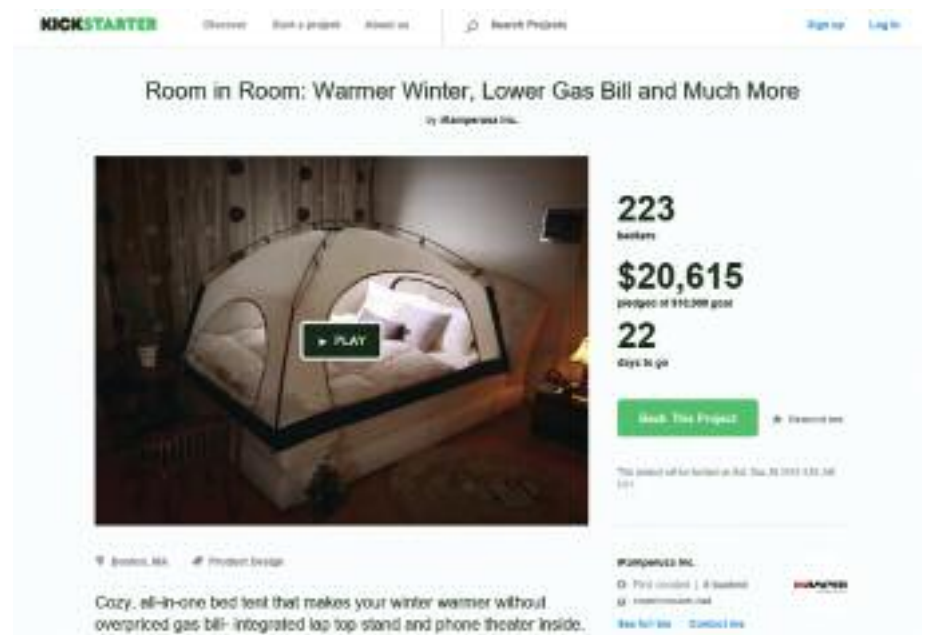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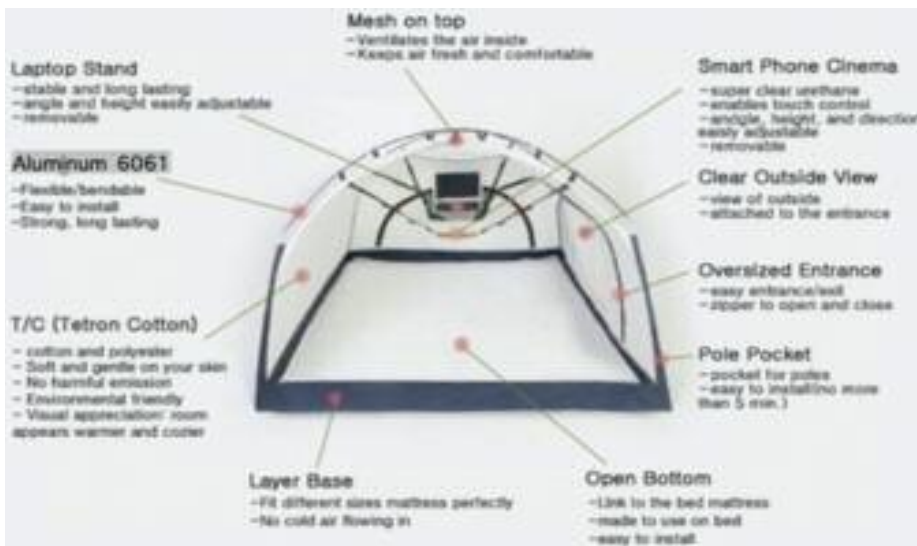
난방텐트 안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거치대와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도 만들어 난방텐트에 매력을 더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 특허를 출원 해두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자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상당부분은 12학년때 대입전형 끝나고 브루클라인 소재 행복빌리지에서 초등생 영어 과외를 하면서 마련했다.

그러나 텐트를 만들고 킥스타터에 올리기가 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크레딧 리스트에서 모델 구인광고를 올려 5명을 인터뷰 한 끝에 모델을 결정했고 계속 자막 수정과 비디오 편집을 해야만 했다. 비디오 편집은 시간이 많이 걸려 킥스타터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케팅이었다. 미국의 유명 블러거들과 언론사에 제품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보내준 사람은 적었다. SNS 마케팅도 결코 쉽지 않았다. 박 양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양은 “이 프로젝트에 펀딩을 하면 고급 난방텐트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



다”고 말하고 “한국문화의 해외수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주립대 엠허스트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할 박양은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행을 떠났다가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침실용 텐트 Room in Room

Room in Room의 Main Fabric은 Cotton과 Poly의 혼방소재인 TC(Tetron Cotton)로 흔히 의류에 많이 쓰이는 원단으로 면의 부드러움과 합성섬유의 내구성을 동시에 지녔다.

TC는 아웃도어 텐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oly나 Nylon에 비하여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우며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Room in Room은 일반적으로 난방텐트에

적용되는 Fiberglass 폴이 아닌 알루미늄 6061 폴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6061은 항공기 날개나 고급 아웃도어 텐트 등에 사용되는 초고강도 알루미늄 금속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자연 친화적이고 부식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면 된다.

프로젝트에 관하여 박소은 양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으며 연락처는 ikamper@naver.com이다.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roominroom/1535109216?token=5f0be44e>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roominroom/room-in-room-warmer-winter-lower-gas-bill-and-much>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리 가본 보스톤 한인의 밤, 6천불 상당 상품 준비

볼거리 풍성, 흥겨운 댄스 타임도 베스트 드레서 상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2일 프레밍햄 소재 웨라톤 호텔에서 개최되는 보스톤 한인의 밤 행사에서는 서울 왕복 비행기 표 등 6천여불 상당의 상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남정수 한인회 문화행사 담당부장에 따르면 토요일 행사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1부, 2부, 3부 순서로 진행된다. 1부는 보스톤 한인의 밤 기념식으로 국민의례 축사 및 상패 증정 등의 순서가 있다. 남 부장은 1부 소요시간을 30분 정도로 내다봤다.

2부에는 저녁식사와 함께 주요 출연진들의 연주 및 공연으로 시간이 구성된다. 사회는 개그맨 엄용수씨가 진행한다. 공연의 순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리사냥 박천우 씨의 가요 무대 및 한숙경 씨와 통기타 듀엣,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나 씨와 가야금 김도연 씨의 협연, 김도연 씨와 원숙경 씨의 가야금 병창, 한여정 씨의 장구 공연 및 장구춤 공연, 소프라노 김연선 씨의 공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4중창, 펠파 부시장 이종철 씨의 노래 등이 준비되어 있다.

남 부장은 “한국의 디너쇼 형식으로 2부를 꾸밀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2,3부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댄스 타임도 준비되어 있다. 한인회에서는 이에 따라 가장 옷을 잘 입은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은 래플 추첨을 통해 6천여불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선물로 와인을 1병씩 증정한다. '보

스톤의 밤'의 입장료는 \$100이며, 티켓 판매처는 서울설령탕(Allston)과 가든하우스(Lawrence)다. 티켓 문의는 646-220-3314로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보스톤 한인회(781-933-8855)를 통해 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미 육사 한인 사관생도 보스톤 방문 5일 성요한 교회 강연회

5일 오후 3시 성요한 교회에서 강연회
서울대 동창회 연말 모임에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육사(West Point Academy Korean Club) 한인 학생 30여명이 12월 4일 부터 12월 6일까지 보스톤을 방문한다.

보스톤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5일에는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에서 한인사관생도들이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 및 한반도 통일, 민주평통과 협

조관계에 대해 강연하고 토론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통 박영찬 수석부회장 또는 이현경 홍보분과위원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dm-dapr333@yahoo.com / nuac-bostonhyun@gmail.com 978-994-6177

날자 : 12월 5일 오후3시
장소 : 성요한교회 2600 Mass Ave, Lexington MA
bostonkorea@hotmail.com



미 육사 한인 학생 30여명이 보스톤을 방문한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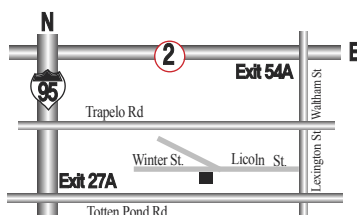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민주 평통, 휴스턴 여성 컨퍼런스 가져

황우성 간사, 이현경 및 모니카리 위원 참여
‘여성이 준비하는 8천만 통일의 꿈’ 주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여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황우성 보스톤 민주평통 간사, 이현경 홍보분과부장, 모니카리 위원이 보스톤 대표로 참석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기철 미주부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등록 및 환영 만찬, 개회, 텡스(Tufts)대 플래처스쿨의 이성윤 교수의 특강, 그리고 마지막날에는 분임토의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휴스턴협의회 배창준회장은 “이번 미주 여성 컨퍼런스는 미주 여성 자문위원들의 통일 당위성 공감 및 역량강

화, 여성위원들간의 교류를 넓혀 나가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맞추어 여성 자문위원들이 민간외교를 펼쳐야 할때” 라고 말했다.

백주현 주휴스턴 총영사는 “차세대들에게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구상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인동포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자세로 통일정책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자” 고 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대박론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준비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는 것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주변국,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북한을 변화 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의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 말했다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미주지역 여성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미흡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특강으로 이성윤 교수는 (북한식 예외주의 즉 도발, 협상, 보상, 제재에 관한 오해)를 주제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체제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문맹률도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겪은 유일한 곳으로 총인구와 국민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라고 설명하며 또 “이제는 남북, 북미 관계를 실제로 개선해야 할 때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관점에서의 개선이어야 하며 통일



휴스턴에서 열린 민주평통 여성 컨퍼런스에 보스톤 대표로 참가한 황우성 간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이현경 홍보분과부장(맨 오른쪽), 이재영위원(맨 왼쪽)

의 시대는 곧 북한주민들의 해방’임을 강조했다.

이현경 보스톤 평통 홍보위원에 따르면 이성윤 교수는 강의 후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다른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날에는 ‘미주여성의 통일의식 및 통일운동 참여제고 방안’, ‘여성이 이어주는 세대간 통일공

감대 형성’, ‘북한이탈주민 가정 현지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이현경 위원은 “통일은 꿈과 희망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포사회 및 미국인들과 소통하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총영사관 3차 창조경제 포럼 14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 보스톤총영사관은 오는 14일 월요일 4시 30분 올해로 제 3차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해 “한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또한 기술창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창조경제 포럼에 관심있는 한인들은 참가 문의 및 예약을 보스톤총영사관 나윤정 비서(yj.kcg-boston@gmail.com, 617-641-2833)에게 하면된다.

bostonkorea@hotmail.com

RI 한인회 총회 및 연말파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로드아일랜드 크렌스톤에 위치한 임페리얼 룸(1 Rhodes place Cranston RI 02905)에서 2015년 총회 및 연말파티를 개최한다.

이동문 회장은 초대장에서 “바쁘

신 중이라도 꼭 참석하여 주셔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며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유쾌한 송구영신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이동문 회장(401-451-8518)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소: Imperial Room
(www.rishriners.com)
1 Rhodes place Cranston
RI 02905 (전화:401-383-9413)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6시 30분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미국 방문 한국인 4개월만에 50만명 돌파

절반 수준 항공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
중국 증가율 추월, 2015년 연말까지 166만명 전망
한국관광객 주로 서부로 몰려, 동부 쪽 증가는 글썽

(LA=미주헤럴드경제) 이경준 기자 = 연방 상무부가 2015년 올 연말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66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연방 상무부가 최근 공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초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총 51만5189명. 1년 사이 19.7%나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인 방문객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중국인 방문객은 18.2%가 늘어난 72만1505명을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1월에 9.9%가 늘어난 15만8027명이 방문한데 이어 긴 설 연휴가 이어졌던 2월에는 37%라는 기록적인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11만3926명을 기록했다.

겨울 방학 이후 비수기로 분류됐던 3월에도 두 자릿수(16.7%) 증가세를 유지하며 11만2131명이 미국을 찾은데 이어 4월에는 22.2%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3만1105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월 평균 12만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을 찾은 셈이다.

올해 들어 미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크게 두 가지를 요인으로 꼽고 있다.

낮아진 유류 할증료 덕에 미국행 항공료 구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과 함께 여름철에 집중됐던 정기 휴가 수요가 봄, 가을로 분산된 것이 역시 올 초 4개월 동안 기록적인 방문객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주관광 피터 박 사장은 “예년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발 항공요금 여파로 올해 들어 한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하나투어USA 이영문 지사장은 “올 들어 특정한 기간에 관계 없이 미 서부지역 패키지 투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예년 보다 20~30%가량 크게 늘어났다”며 “전체적으로 미국 방문 수요도 늘고 있지만 과거처럼 여름과 겨울 방학에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들

집중되던 수요가 봄과 가을로 분산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미 서부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고객도 크게 늘었지만 개별적으로 LA 등 미 서부지역을 방문해 현지에서 관련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 역시 30%이상 급증했다”며 “한국에서도 미국 여행에 대한 저변이 이미 넓어져 과거처럼 한국에서만 파는 제한

적인 상품 보다는 온라인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고 있어 개별 방문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상무부는 미국 방문 한국인이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202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버클리 출신 작곡가 권정은 첫 싱글 앨범 발매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뮤지션이 되고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클리음대 출신 작곡가 권정은의 첫 싱글 EP 앨범 'Someday'가 발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스톤의 전경을 자켓으로 한 이번 첫 싱글 EP 앨범에 수록된 "Someday"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권정은은 이번 EP발매를 시작으로, 그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발표할 계획이다.

권정은은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한국, 미국 등에서 유명 가수들과의 작업을 통해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이후 여러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참여한 권정은은 이번 싱글 EP 앨범을 통해 본격적인 뮤지션 행보에 나서게 된다.

권정은은 버클리음대 졸업 후 학교 선배이자 저스틴 비버의 프로듀서인 신혁 대표 아래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백지영의 "Good Boy" 작곡가이며 같은 버클리 출신의 저스틴 옥(Justine Ok)이 설립하고 유명 콘텐츠 프로듀서

이자 음악 칼럼니스트인 케일라 유(Kayla J.Yoo) 등이 소속된 파이에라(Fiera Music)사에서 프로듀서, 엔지니어 및 비지니스 일을 담당해오고 있다.

권정은은 지난 해 팝스타 알리아 클라크(Alia Clark)의 첫 데뷔 앨범 "Simply The First" 수록곡인 'You Make Me Me'에 참여하기도 했다. Simply The First는 포르투갈,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에서 2년 가량 장기 프로젝트로 널리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권정은이 기획 및 홍보 마케팅을 담당했던 대표 작품으로는 티나미나(TINAMINA)의 데뷔 싱글 '젤로(Jello)'와 지난해 발매되었던 미국의 아티스트 본 아이 뮤직 & 저스틴(Born I Music & Justine)의 콜라보레이션 싱글 앨범 'Champion'이 있다. 이 앨범은 Sony Music Korea에서 2014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자 발매한 앨범 '겨울 운동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 브라운의 곡과 함께 당당히 수록된 바 있다.

권정은은 독도지킴이, 남북 평화 활동 등을 통해서 국내에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버클리음대 유학 시절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기 위해 영어로 된 독도 노래를 작곡했다. 당시 이 노래 영상이 화제가 돼 한국 지상파 뉴스에 소개 될 정도였다.

또한 권정은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유학생과 재미교포를 위한 영어 월드컵 응원가와 더불어 남북한 동반 출전 기념 남북 평화 송을 작곡하기도 했다. 이 노래 영상은 이탈리아 유명 잡지사 와 이어드 주최 유튜브 콘테스트에서 우승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회수만 670,000회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권정은은 "이번 싱글 EP 앨범 첫 발매가 더욱 뜻깊은 것은 음악계 여러 곳을 전전한 뒤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파이에라 뮤직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송라이터이자 래퍼인 저스틴 옥이 이끌고, 컨텐츠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인 케일라 유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 음악 레이블이다. 2008년 보스톤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이주한 이들은 각각 백지영의 "굿보이"와 소녀시대의 "낭만길"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엑소의 "으르렁"으로 더 잘 알려진 줌바스 뮤직 그룹의 설립에도 동참한 대중 음악계의 여성 인재들이다. 파이에라 뮤직은 설립 직후 미국 내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킥스타터에서 시작한 모금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소니 뮤직 코리아를 통해 저스틴의 아티스트 데뷔작인 "챔피언"을 발매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굳건히 성장하고 있다.



싱글 EP 앨범 'someday' 를 발매한 권정은씨(아래줄 맨 오른쪽)

가격 동결, 주류 판매망도 재정비

▶▶1면에 이어서

주 판매 소주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라며 "참이슬과 하이트 맥주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LA지역 한인식당가에서 참이슬 소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둔 물량 조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매니저는 "주류배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얼마전 유통업체를 확정 한 만큼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품이 제 시간에 공급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가 자사의 주류

유통공급권을 미국의 대형 주류유통세일기업에 넘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 매니저는 "계약업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류 판매망을 재정비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가격 동결 소식에 애주가들과 마켓 관계자 그리고 요식업체 업주들은 안심하고 있다. 한인 식당의 한 업주는 "지금도 소주값이 비싸다고 말이 많은데 가격이 더 오르면 매상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했다" 라며 "다른 소주도 있고 가격도 이들 제품이 더 싸지만 참이슬의 인기를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국 송금, 더욱 간편하고 저렴하게

한국 금융위 인터넷은행 선정...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

(애틀란타 = 애틀란타조선) 김종열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바일을 사용해 한국과의 송금 및 환전이 쉬워지고 수수료도 내려갈 전망이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를 지난달 29일 선정했다.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말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취해진 조치로 이것이 시행되면 현재까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화송금을 카카오은행 등과 같은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은 우선 은행 지점을 방

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만으로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불필요한 지점관리 인건비와 운용비 등을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의 송금 등이 잦은 애틀란타 한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송금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메신저 '카톡'으로 송금하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며 세계 최대의 개인간 온라인 환전 서비스인 '트랜스퍼 와이즈'와 맺은 제휴를 기반으로 기존 은행권에서 송금할 때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계획하고 있다.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도 전화 번호 기반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jkim@atlantachosun.com

소셜시큐리티 연금법 개정된다

보스턴봉사회 제공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file and suspend)” 그리고 “연금항목을 제한한 신청방법(restricted application)” 두 조항이 바뀐다.

배우자연금은 부인이 남편의 크레딧을 근거로, 남편의 만기연금액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1954년생까지는 만기연금액이 만 66세로, 이때 신청하여 받는 연금을 만기연금액이라고 한다.) 부인은 일반적으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만기연금액 나이 전에 타면 위의 50%에서 일년 당 약 8%씩 깎인다 (조기연금액). 또한 남편도 반드시 연금을 받고 있어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 연금을 타려고, 남편이 연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 불이익인 경우가 있다. 즉 남편은 될수록 늦게, 만 70세까지라도 기다려 더 높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 조항이 유용한 것이다. 이 조항을 쓰려면 남편은 반드시 만 6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남편이 연금신청을 하고 동시에 보류하면, 남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인은 배우자 연금을 탈 수 있다. 동시에 남편은 연금을 실제 받지 않아, 자신의 연금이 연 8%씩 불어난다. 부인은 배우자 연금 타고, 남편연금은 계속 불어나고, 평생 먹고 알 먹는 것이다. 수만불의 이득을 보는 부부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16년 4월 30일부로 폐기된다. 따라서 내

년 4월 말까지 만 66세가 되는 사람은 일단 검토하기 바란다.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다시 배우자연금으로 돌아가자. 만약 부인도 자신의 크레딧이 있어,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자. 부인이 만 66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배우자연금과 자신의 연금 둘 중 많은 것을 받는다. 선택권이 없다. 이 연금이 평생 연금이 된다. 그런데 만 66세가 되면, 부인은 “연금항목을 제한한 연금신청”을 하여 배우자연금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를 하였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은 배우자연금을 받고, 한편 자신의 연금은 매년 불어난다. 만 70세까지, 아무때나 자신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만 62세 (1954년 1월 1일생까지)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만 62세 미만인 경우는 이 조항을 더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상기 두 조항의 폐기로 부유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혼자, 그리고 싱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기에는 부부의 나이, 건강, 경제여건, 각종 연금액 등등, 고려할 요인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봉사회 사이트, WWW.BAASI.ORG를 방문, “연금개정” 단추를 누르면 알 수 있다.

보스톤 산악회 제 21차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한정원)는 오는 12월 12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피어스(Mt. Pierce)로 21차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의 거리는 왕복(Crawford Connector(0.4) - Crawford Path Webster(2.7) Cliff Trail(0.1) 왕복 6.4 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5시간이다.

마운트피어스의 고도는 2400 ft이며 난이도는 보통(중급) 정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 아이젠(Microspikes), 우의,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 00분)과 93번도로 Park&Ride Exit2 (오전 6시 4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 780-6521로 할 수 있으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cafe.daum.net/bostonmoun-

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행일: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턴 공영주차장 오전 6시 시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음주 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말에는 여러 술자리가 있기 마련이다. 늘 피치 못하게 술을 마실 경우가 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운전할 사람을 지정해 두고 마시거나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 운전은 범죄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은 물론 음주 운전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드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음주 운전 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음주 운전을 삼가게 될 것이다. 연말 음주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 대처방법을 자세히 기술한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보스톤에서 도로를 막고 음주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경찰이 차를 세웠다면 고속도로의 경우 난폭 운전 또는 지그재그 운전이 드러났을 때이다. 로컬 도로인 경우 특히 신호등에서 과란불인데도 가만히 서 있거나 급출발을 할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한다.

경찰이 뒤에 붙어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비상등을 켜서 내리는 경우 오른쪽으로 충분한 정차 공간이 있는 곳으로 차를 댄다. 실내등을 켜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한다.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 놓고 기다린다.



운전능력 테스트(FIELD SOBRIERY TEST)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음주 여부를 기본적으로 판단한 후 일반적으로는 운전 능력 테스트(FIELD SOBRIERY TEST)를 실시한다. 만약 자신이 없는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거부해도 된다. 그러나 알코올농도가 높아도 한발로 서기, 알파벳 앞뒤로 세기 등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결코 취중 운전이 아님을 운전 능력 테스트로 증명하는 것이 좋다.

울스톤 소재 가츠엔 화이트헤드 변호사 사무실의 필립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취중이라도 증명되



지 않는 한 자신을 범죄자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테스트에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경찰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운전자를 귀가 시키지만 테스트를 거부했거나 테스트에 실패한 경우 일반 지방 도로이면 해당 타운 경찰서, 고속도로 또는 주 관할 하의 도로의 경우 주 경찰서 지점으로 끌려가게 된다.

음주 호흡 측정기(BREATHLIZER TEST)를 받아야 하나?

경찰서에 도착하면 경찰들은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음주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BT(BREATHLIZER TEST)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테스트에 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테스트를 실시할 때 멜라니법을 인용해 만약 BT를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6개월 면허가 정지된다고 경고한다. 2005년 통과된 멜라니법으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은 BT테스트에 임할 것을 권유한다. 경찰이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테스트 결과가 법정에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검사가 증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9면으로 계속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음주 운전 대처 방법

▶▶8면에 이어서

방법이 바로 혈중알코올농도테스트 결과다. 만약 제대로만 실행했다면 이는 결코 쉽게 방어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또한 가지는 경찰의 증언이다. 당시의 운전자 상태, 운전 능력 테스트, 체포당시의 상황, 주변정황,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물질적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부 측에 무게를 둔다. 필립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보통 맥주 2-3잔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알코올 농도가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거부 선택하는 것이 운신의 폭이 넓다” 고 조언했다.

보스톤의 변호사 벤자민 어벨리스는 웹사이트에서 “운전능력테스트와 혈중알코올농도테스트 두가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결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고 말하고 “BT거부와 함께 차사고, 위험한 행동, 자신이 잘못했다는 발언 등 불리한 요인이 없는 경우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고 말한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증은 복원되며 범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 날짜를 잡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4-6개월)되고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금전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0.08을 넘지 않으면 관찰지만 이것이 넘는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 후 Hardship licens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정 딜(Plea Deal)

위에서처럼 막대한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면허증이 빨리 필요한 사람의 경우 법정 딜(Plea Deal)을 선택해야 한다. 법정 딜을 선택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기도 한다.



최고의 법정 유죄딜을 이끌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이다.

1. 범죄 미확인 (A Continuance Without A Finding :CWOFF), 이것은 유죄가 성립할만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1년 간의 집행유예 (One year term of probation)
3. 16주간의 음주 교육 (비용: \$567.22)
4. 각종 벌금과 수수료(1년간 약 \$1400에 달함, 마지막으로 면허증 복원발급(\$500)

음주 운전의 피해 막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음주 운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집에만 있으면 \$100이면 해결되었을 문제다.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음주는 집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 운전을 선택해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다가구 주택 소유주 세금 대폭 인상

보스톤의 주택 가치 상승에 따라 세금도 대폭 올라 주택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렌트 인상분에도 세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 거주하며 3가구 이상 주택(three-decker)을 소유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간주됐다. 최근 렌트비용이 높아지면서 이는 금수저로 각광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했다.

지난주 보스톤 시가 발송한 주택 가치 평가서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에게 강력한 세금 펀치를 날렸다. 집을 세놓지 않은 1가구 주택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주들의 세금은 1% 인상에 그쳤지만 2가구 주택의 경우 8%, 3가구 주택은 11%의 세금이 상승했다.

이같이 세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유는 주택의 가치 상승분 뿐만 아니라 렌트비 인상으로 인한 임대소득 증가분까지 가치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은 오랫동안 임대소득을 보충 소득으로 사용해왔던 주택 소유자들을 압박하고 신규 3가구 주택 구입자들의 중산층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스톤글로벌은 지적했다.

그동안 보스톤 주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3가구 주택은 여러 면에서 투자 주택으로 각광받아왔다.

보스톤 재단(The Boston Foundation)에 따르면 보스톤 매트루 지역의 렌트비는 지난 3년간 무려 11%가 인상됐으며 평균 콘도 가격은 \$477,000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주택값의 두배에 달한다.

보스톤 주택가치평가부 론 레이코우 장관에 따르면 3가구 주택의 평균 추정 가격은 20%인상된 \$581,002이며 2가구 주택은 17.1% 인상된 \$534,593이었다. 이처럼 세금 부과를 위한 가치 평가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실제 세금은 이 같은 추세만큼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다. 보스톤 시는 프로포지션 2 1/2(Proposition 2 1/2)에서 규정된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율을 오히려 낮췄다. 이에 따라 많은 콘도미니엄 및 1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오히려 주택 가치 상승분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3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세금인상의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리 벨로즈 씨는 사우스 보스톤에 소유한 3가구 주택의 세금이 지난해 약 9천여불에서 올해 \$12,500로 인상되자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무려 3분의 1 이상의 세금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 대출과 자신의 저축을 합쳐 주택 개선공사로 보수 수리한 벨로즈 씨의 경우 현재 2베드룸 아파트를 \$2900에 렌트하고 있다. 1층에서 자신의 헤어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벨로즈 씨는 결코 렌트비 인상으로 현재의 임

주자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많은 사우스 보스톤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빌딩을 콘도로 전환해 이들을 파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벨로즈 씨는 현재 세금 인상분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의 경우 인상분을 자신이 떠 안을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이 같은 인상이 있게 되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밥 몰스버거 씨의 경우 자메이카 플레인에 2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세금은 올해 20%가량 오른 \$1200이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7%인상에 이은 것이다. 몰스버거씨는 35년 전 이 집을 \$37,000에 구입했다. 바로 이웃집의 경우 3가구 주택을 1백10만불(1.1million)에 재개발업자에게 팔았고 이 개발업자는 3개의 콘도로 재개발해 이를 2백 10만불(2.1million)에 팔았다.

자신의 주택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 것을 깨닫고 있는 몰스버거 씨는 현재 아래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아직 주택을 팔 생각은 없다. 그러나 \$1200인상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폭등과 세금의 폭등은 결국 일반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스트레스, 비만, 다이어트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뇨기 장애
- ⑦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다이어트
- ⑧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건강관리
- ⑨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브랜드이즈 대학생 시위 12일만에 종료

건물 점거하고 인종 문제 해결 요구
학교 측 인종의 다양성 위해 노력 약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행정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던 수백 명의 브랜드이즈 대학생들이 12일만에 해산했다. 브랜드이즈 대학교 내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11월 20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12월 2일, 학교 측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브랜드이즈 대학생들은 총장 사무실이 위치한 버스타인-마커스 센터를 점거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브랜드이즈 교수진 중에서 흑인 교수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인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늘리고, 매년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인종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흑인 상담 교사와 흑인 학생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13개 항목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지난 2일 리사 린치 브랜드이즈 임시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인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린치 총장은 소수 인종 학생과 교수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교

실에서 인종과 관련해 불평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수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의 농성을 주도한 #ConcernedStudents2015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브랜드이즈 학생들을 위해 길을 닦아 놓은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행동이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린치 총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 jsi@bostonkorea.com



11월 23일, 브랜드이즈 대학교 총장실로 가는 복도를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다

교내 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 인생 경험을 가진 공동체 덕분에 우리는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말했다.

브랜드이즈 대학교에서 발생한 항의 시위는 올해 가을 들어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 하나다. 많은 대학교에서 인종과 관련한 시위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주 사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의 명문 대학교에서도 인종 문제와 관련한 시위가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회사들이 있다

MA주 보험회사들 지나치게 보험료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큰 주택 보험 회사 중 2곳이 지나치게 높게 보험료를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밝혔다. 지난 겨울 매사추세츠 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것을 악용해 9%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주 법무부는 모프레이 유에스 에이(Mapfre USA Corp.)와 세이프티 인슈어런스(Safety Insurance Co.)가 장기적인 경향보다는 지난 겨울 폭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한 것을 발견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데 이 두 보험회사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올린 것이다.

또한 힐리 법무장관은 이 두 대형 보험회사가 목표로 삼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부가 잘못을 지적한 두 보험회사는 최근 보험료를 평균 100달러 가량 인상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평균 주택 보험 가격은 1,150달러이다.

주 법무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면 모프레이는 올해 보험료를 인하했어야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세이프티 역시 보험료를 3% 이내로 인상했어야 하는데 9%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면역력증진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촉촉함 그 이상의 뿌리 보습
동인비초오일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드샷 튜터링

Nabis Studio

하버드 법대 로고 노예상과 연루로 교체 검토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하버드 학생들이 하버드 법대 로고 문양이 과거 노예를 거느렸던 집안의 문장에서 따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버드 법대가 로고 문양의 사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법대 로고는 하버드의 모토인 베리타스와 함께 세뿔의 호밀다발 그림이 있는데 이 호밀은 이사 로열(Isaac Royall)가의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로열은 노예를 거느렸던 봉건지주로 하버드 대학에 땅을 유언으로 남겼고 대학은 이 땅을 팔아 처음으로 법대를 세우게 됐다. 하버드 법대에 따르면 로열의 아버지는 노예를 아주 잔인하게 다뤘으며 77명의 노예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다.

하버드 법대 마사 미노우 학장은 성명서를 통해 "심볼은 중요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에 집중할 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노우 학장은 로열가문의 문장을 하버드 법대 로고에서 제거할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열은 지난 1781년 사망했지만 하버드 로고는 하버드 코퍼레이션이 이 심볼을 1936년 채택해서 학교의 단과대학들의 문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대 로고는 법대 건물은 물론 하버드 로고를 새긴 상품들에 사용되어 왔다.

최근 일부 법대생들은 로열 가족의 문양을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학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반드시 그 문양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로고문양을 바꾸는 것으로 노예 무역의 흑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풍경에 숨어있는 인종차별의 어두운 유산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것

이다"라고 적었다.

이들의 편지는 지난 11월 19일 누군가 하버드 법대 웨스턴홀에 걸려있는 흑인 법대 교수의 얼굴은 테이프를 훼손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됐다. 하버드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인종혐오사건으로 보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로열 문장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행위가 현재에도 여전히 인종주의가 학교와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연히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노예 무역의 흑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법대 특별위원회는 현직 교수, 학생, 동문 그리고 하버드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학교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3일 목요일 아침 배셀 라인 어퍼스쿨 앞에 케임브리지 경찰이 경계를 서고있다

총기 위협 이메일 케임브리지 모든 공립학교 경계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시는 3개 중학교에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메일을 경찰이 접수한 후 케임브리지 공립학교의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3일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이메일은 이번 주 들어 두번째 무기명 위협 메일이어서 경찰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경찰서장 로버트 하스와 학교 교육감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무기명의 이메일 위협을 받았으며 3개의 중학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론된 학교는 아미고스스쿨(Amigos School), 퍼트넘 애비뉴 어퍼스쿨(Putnam Avenue Upper School), 그리고 배셀 라인 어퍼스쿨(Vassal Lane Upper School)이었다. 이 중 학교 건물에는 토빈 몬테소리(To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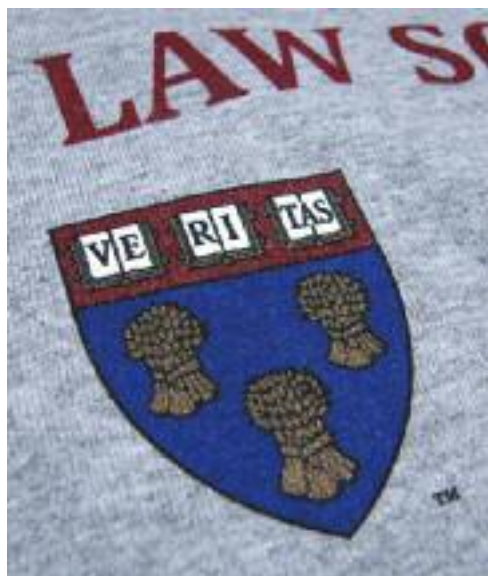
Montessori) 그리고 케네디 롱펠로우 스쿨(Kennedy-Longfellow Schools)이 함께 입주해 있다.

케임브리지 경찰 제레미 워닉 대변인은 경찰이 3일 이른 아침 이들 학교 빌딩을 수색했지만 우려할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위협을 받은 후 해당 학교들은 2일밤 10시 30분에 봉쇄됐으며 3일 아침 학교 정문에는 경찰과 학교 담당자가 학생들의 등교를 경계했다.

첫번째 이메일은 12월 1일 오후 8시 반에 시 관계자가 받았으며 두번째 이메일은 12월 2일 오후 8시에 케임브리지 경찰 관계자가 받았다. 두 이메일은 동일한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법대 로고 문양



법대 3학년 생인 토리 앤드슨 양이 흑인 교수의 사진에 지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15 YEARS ARLINGTON MR.SUSHI

순두부, 일본 사골 라멘
Spicy Soft tofu, Japanese Ramen

열린 순두부, 사골국물로 맛을 낸 구수한 MISO KAKUNI RAMEN

TEL (781) 643-4175

\$5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3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25 MASS AVE. ARLINGTON, MA. 02116
TEL 781-643-4175

\$10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5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 643 4175

미 대선 트럼프-힐러리 독주 체제 "적수가 없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오는 2016년 미국 경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후보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대선 풍향계'로 평가받는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불과 두달 앞두고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27%의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 가운데 1위를 유지했다.

최근 지지율 급상승으로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던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 후보가 직전 여론조사 대비 7%p 하락한 16%의 지지율로 3위로 추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TV토론에서 선전한 마르코 루

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17%로 2위로 올라섰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카슨 후보와 같은 16%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고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5%로 5위를 기록했다.

이 외의 후보들은 모두 3%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9.11 테러 당시 무슬림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지지율은 전월인 24% 보다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7월 이후 발표된 공화당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지키고 있다.

팀 말로이 퀴니피악대 여론조사연구소 부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거나 발언이 진위 여부 등을 떠나 이는 문제가 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마치 방탄복(Kevlar)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6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인 30%의 2배 수준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지율은 단 2%에 그쳤다.

클린턴 후보는 경쟁자로 거론됐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퀴니피악이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의 오차범위는 공화당이 3.8%, 민주당이 4.1%로 파악됐다.

ejjung@news1.kr



제이 존슨 미국도안보부 장관

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손본다... 생체인식 정보 수집도

(워싱턴 로이터=뉴스1) 윤지원 기자 = 한국을 포함해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38개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30일 미국 백악관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것을 예고했다.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38개국 시민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는 것이 미국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

새로운 비자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미국도안보부(DHS)는 시리아나 이라크 등 테러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방문 기록이 있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계획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용의자가 불법 취득한 여권으로 프랑스에 입국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서둘러 자체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DHS는 비자면제 대상 여행객들의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과일렛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권 확인이 되지 않은 여행객을 태운 항공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DHS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미국은 사전 검증 작업을 미국 공항뿐만 아니라 해외 경유 공항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입국 심사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두고 1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회의를 연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38개국 여행객은 모두 칩과 생체 인식 정보가 담긴 'e-패스포트'(e-passport)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무리없이 정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을 예고했다.

yjw@news1.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후보(왼쪽),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Washington St.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COLDWELL BANKER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유가급락 · 엘런발언 일제히 하락

(로이터=뉴스1) 장안나 기자 = 뉴욕 증시가 2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업종 부진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12월 금리 인상 지지 발언 영향으로 유틸리티 업종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달러 강세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23.12포인트(1.1%) 하락한 2079.51을 기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58.67포인트(0.89%) 내린 1만7729.68로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33.08포인트(0.64%) 떨어진 5123.33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는 오전에 보험권에서 공방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나스닥 역시 오후 들어 알파벳과 아마존 등이 하락 반전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증시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운 것은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한 때문이다. 에너지업종 지수(로이터 기준)는 2.54% 급락했고 유틸리티 업종 지수와 원자재 업종 지수 역시 각각 1.94%와 1.61% 떨어지며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 엘런 의장 · 록하트 총재 12월 금리인상 지지

이날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엘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에 모아졌다.

엘런 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강연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준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엘런 의장은 미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월까지의 고용증가율을 보면 노동시장이 아직 완전히 활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해외약재가 내년에는 완만해지기 시작하리란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엘런 의장은 또 해외 리스크가 지난 여름부터 열어졌다며 소비지출이 특히 견고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런 의장은 달러 강세가 미 경제성장세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달러 강세를 용납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엘런 의장 연설과 관련해 바실리 세레브리야코브 BNP파리바 외환스트래티지스트는 "엘런이 미국 경제에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은 평가가 12월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앞으로 2주간 나올 경제지표가 미 경제전망이 급변할 정도로 나쁘지만 않다면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설득력 있다"고 말해 엘런 의장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 베이지북, 미 경제 완만한 확장 지속 평가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12개 연은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등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 지역경제를 조사 분석한 경제동향 종합보고서다.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가운데 9개 연은은 지난 10월 베이지북과 동일한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보스턴의 경우 성장세가 둔화됐고 캔자스와 뉴욕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엘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숫자보다 더 나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의 경우 고가품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 증가세가 관찰됐고 4개 연은은 새로운 개발 사업이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애틀랜타와 미니애폴리스, 캔자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숙련공과 일반 직원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숙련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관련 업종의 부진도 관찰됐다. 특히 에너지 업종의 해고는 지속되고 있고 사무직의 해고가 연초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는 호조를 이어갔다. 일반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 신축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 11월 미 민간고용 6월 이후 최대 증가... 생산성도 상향 조정

이날 발표된 경기지표도 호조를 나타냈다.

먼저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메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1월 신규 고용자수가 21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 기록(19만6000명)은 물론 시장 예상치 19만명을 모두 웃돌았다.

10월 민간고용은 당초 18만2000명 증가에서 19만6000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지난 3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증가율도 종전 1.6%에서 2.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3분기 단위 노동비용도 당초 1.4% 증가에서 1.8% 증가로 조정됐다.

◇ 국제유가 급락, 달러 강세, 금값 약세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91달러(4.6%) 급락한 39.94달러를 기록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역시 1.95달러(4.4%) 급락한 42.49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120만배럴 증가하며 예상치 47만1000배럴 증가를 2배 이상 웃돌았다. 달러는 경기지표 호조와 엘런 의장의 금리인상 지지 발언에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내년부터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15% 오른 100.00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15% 하락한 1.0615달러를, 엔/달러 환율은 0.27% 오른 123.18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국제 금값은 약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9.7달러(0.9%) 하락한 1053.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제 은 가격 역시 온스당 7.4센트(0.5%) 내린 14.009달러에 마감했다. 구리 가격은 1.9% 떨어졌고 백금과 팔라듐 역시 0.4%와 2.5% 하락했다.

subway@news1.kr



2일 연설하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엘런 의장 "미 기준금리 인상 손꼽아 기대"

(워싱턴 로이터=뉴스1) 장안나 기자 =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고 2일 발언했다.

엘런 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에서 준비된 연설문을 통해 이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엘런 의장은 미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월까지의 고용증가율을 보면 노동시장이 아직 완전히 활력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해외약재가 내년에는 완만해지기 시작하리란 기존 견해를 확인했다.

엘런 의장은 또 해외 리스크가 지난 여름부터 열어졌다며 소비자

출이 특히 견고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을 몹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런 의장은 이어 거의 10년 만의 첫 금리인상 시점보다는 이후 인상 진행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급작스런 긴축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자칫하면 경기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엘런 의장 연설과 관련해 바실리 세레브리야코브 BNP파리바 외환스트래티지스트는 "엘런이 미국 경제에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은 평가가 12월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논평했다.

subway@news1.kr



연방은행장들도 12월 금리인상에 힘쓸어...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이어 지역 연방준비은행장들도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연준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날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의 강연을 통해 "나는 금리인상을 늦추는 쪽보다 앞당기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은행장은 "통화정책은(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길고 가변적인 시간차를 갖고 있다"며, 너무 늦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불균형 상태"를 야기해 "경제에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현재의) 경제 판단이나 전망을 크게 바꿀 만한(경제) 지표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필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록하트 은행장은 이날 오전 플로

리다 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잠재된 물가 인상의 신호들이 다양하면서도 한시적인 물가 동향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록하트 은행장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장들 중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매파' 성향에 가까운 의견을 보여 왔고, 윌리엄스 은행장은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에 가깝다고 분류돼 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엘런 의장 역시 이날 강연에서 "금리 정상화의 개시를 너무 오래 미루면 나중에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긴축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갑작스러운 긴축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예기치 않게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전업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내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1천912억원이 늘었다.

특히 0~2세 보육료는 올해보다 6% 올랐다. 애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3% 올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인상 폭이 6%로 더 커졌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올해 2조9천618억원에서 2016년 3조1천66억원으로 올랐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2015년 93.6%에서 2016년 99.3%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천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액을 올해 7천794억원에서 내년 8천168억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런 보육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 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7

시간(6시간42분)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부모취업·구직·직업훈련·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80% 정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무상보육혜택을 누리지만, 나머지 20%가량은 맞춤형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회 이경민 간사는 대선공약인 국가완전 무상보육 약속을 뒤집는 조치로,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갈라놓는 등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2016년도 복지부 총예산은 55조8천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53조4천725억원)보다 2조3천712억원(4.4%)이 늘었고, 애초 내년 정부예산안보다는 2천784억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 같은 대형재난(신종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의료기반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수술실·중환자실 등을 갖춘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이 늘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 때 신속하게 검역해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이 증액됐다.

shg@yna.co.kr



전업주부 0~2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이상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JESSICA BEAUTY

한국 종합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감화 조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386.4조 새해 예산 처리...관광진흥법 등 43개법 의결

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의...차수 변경 끝에 예산 법정시한 넘겨 종교인과세·ISA도입·무늬만 업무용차근절 등 세법 일괄 통과 관광진흥법·대리점공정화법 등 쟁점법안도...다시 입법전쟁

(서울=뉴스1) 박상희, 김영신, 심언기, 서미선 기자 = 국회가 3일 우여곡절 끝에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비록 차수 변경으로 인해 법정시한인 2일에서 48분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수정안을 가결시키면서 정부 원안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넘겼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쟁점 법안도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대로 가결 처리되면서 일단 연말 국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놓고는 사실상 정부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완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고 여당이 원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해 주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날 본회의도 극적으로 열

렸다. 오후 2시부터 4시, 7시, 8시, 10시까지 수차례 개의 시간이 바뀐 본회의는 오후 11시10분께 겨우 시작됐다.

오전 상황까지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과 예산안 연계는 안된다며 이날 본회의의 개이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여당의 거듭된 설득으로 정의의장이 쟁점 법안 심사 기일을 이날 오후 11시30분으로 지정하면서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었다.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쟁점 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다만 정 의장은 "여야 정당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돼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거수기가 됐다"며 현 국회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총 4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49건 중 법률안은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43건이었으며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6건이었다.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해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새해 예산안은 재석의원 275명에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가량이 순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안 총지출 가운데 심사를 벌여 3조8281억원을 삭감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심사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000억원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정부가 우회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쏟아졌다.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신청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달라며 내준 세금으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산성을 쌓았다"며 "정부는 서민을 위한 법과 예산을 외면하며 내팽개 쳤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많은 정성을 들였다"며 "예산안이 신속 원만하게

처리돼 경제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돼 주길 간절히 바라고 적극적으로 찬성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 데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을 초과하게 돼 예결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세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됐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녹음과 향수,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

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늬만 업무용차'를 근절하고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과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 개정안,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 특별법도 처리됐다.

sanghwi@news1.kr



386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ic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38-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DEC. 4TH - DEC. 10TH, 2015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Hmart 2015 베스트 상품 모음전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Enjoy unbeatable savings on our bestselling product at your local Hmart.

· 2015 ·
BESTSELLERS



SAVINGS EVENT

H마트에서 2015년 한해동안 가장 인기있는 베스트 상품을 세일합니다.

KAGA 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20 lbs. **\$21.99** SMART CARD ONLY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15 lbs. **\$9.99** SMART CARD ONLY

NONGSHIM Shin Ramyun  4.2oz. x 16ea./box **\$9.99** SMART CARD ONLY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BLUE JAY Mandarin  FRI/SAT/SUN ONLY 4/5/6 ONLY **\$1.99** lb.

Ginger **\$1.29** lb.

Dried Persimmon **\$5.99** lb.

Singo Pear  FRI/SAT/SUN ONLY 4/5/6 ONLY **\$26.99** box

Koimo Sweet Potato **\$1.4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14 - 16oz.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Flank Steak  육개장용 **\$7.99** lb.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99** lb.

Beef Heel Meat  소 사태 **\$7.99** lb.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5.99** lb.

Sliced Beef Short Plate  방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7.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프리미엄 영광굴비 선물세트 10 lbs./box **\$61.99**

TONGTONGBAY Oyster  통통베 정정생굴 8oz./pkg. **\$5.99** pkg./for

NEW ZEALAND Half-Shelled Mussels  뉴질랜드산 방동 반갠 홍합 2 lbs./pkg. **\$7.99**

Cooked Wheel Meat  방동 굴뱅이살 **\$9.99** lb.

Cod Fillet  대구 전갈 **\$5.99** lb.

SUHYUP Pacific Squid  수협 동해산 선동 방동 오징어 **\$2.99** lb.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한국의 특허기술로 만들어 냉장고에서도 말랑말랑 오래가는 진가떡

JINGA RICE CAKES STAY SOFTER & LONGER

NONGSHIM Zha Wang Noodle with Roasted Chajang Sauce **\$7.99** 농심 짜왕 4.7oz. x 4ea./pkg.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9.99** 0.7oz. x 10ea./box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KTOWN Instant Bibimbap/Japchae 케이타운 즉석 비빔밥/잡채 9.87 - 10.86oz. **\$1.99**

CJ Bibigo Crispy Rice Wrapper Potstickers CJ 비비고 쌀 군만두 1lb. **\$3.99**

YOODONG Canned Wild Bai Top Shell 유동 자연산 굴뱅이 통조림 14.1oz. **\$6.99**

CHORIPDONG Coarse Sausage 초림동이 통통한 비엔나 소세지 8oz. **\$2.99**

OTTOGI Dried Seaweed 알칼리성 자연식품 오뚜기 옛날 미역 8.8oz. **\$7.99**

SCOTT Extra Soft Bath Tissue 스캇 엑스트라 소프트 화장지 12rolls/pkg. **\$5.99**

Knit Microfiber Indoor Slippers 니트 극세사 실내화 Black Mint/Red Mint - Pair **\$3.99**

HELLO HOME Ceramic Electric Kettle 헬로홈 세라믹 전기 주전자 White/1.2L/ea. **\$19.99**

KUKAUS Water Drop Shaped Humidifier 쿠하우스 물방울 가습기 4L/ea. **\$32.99**

내년 국방예산 3.6% 오른 38.8조...추가입영 등 증액

내년에도 1만명 추가입영...인건비 등 632억 추가 확보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 500억원 등 증액...

사단급 무인정찰기·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은 감액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내년도 국방부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액된 38조 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북 억제력을 위한 사업비와 더불어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양산,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추가입영 등이 주요 예산증액 요인으로 꼽힌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부 예산은 38조 7995억원으로 올해 예산(37조 4560억원)보다 1조 3435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177억원 증가한 27조 159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최근 심각한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1만8000여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내년도에도 1만명을 더 입영시키기로 한 데 따라 늘어나게 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 632억원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장비들이 쓸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 및 표준형 구급차 확보사업에 따른 예산도 전력운영비 증액 요인으로 분석됐다.

방위력개선투자는 올해 11조 140억원에서 6258억원 늘어난 11조 6398억원이 책정됐다.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에 500억원이 포함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신형화생방정찰차 양산과 내년부터 개발되는 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 항공탄약신관 개발 등 3개 사업 비용 84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전력운영비 부분에서 최근 지속적인 유가하락 추세를 고려해 장비연료 등 유류비 801억원이 줄었다.

또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 500억원을 감액해 병사 추가입영 등 필수사업 재원으로 돌렸다.

방위력개선투자 부분에서는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등 9개 사업에서 523억원이 감액됐으며, 전술정보통신

체계(TICN) 양산에서 333억원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서 50억원이 감액되는 등 474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로 감액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bin1981@news1.kr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현장

의료 민영화 논란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본회의 통과

공공산후조리원법·전공의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공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다. 이는 해당 법안이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법과 병합돼 심사됐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의료광고 양산을 방지했다.

논란이 돼 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했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문은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한 법안으로 야당의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법

) 개정안, 전공의 특별법과 이른바 '딜'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통과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이날로 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난항이 계속 됐지만, 이날 오후 절충

안이 마련되며 극적으로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야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판단권을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었다.

결국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라는 문구와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다'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장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주도록 수정됐다. sanghwi@news1.kr

2018년부터 종교인 세금 부과 최종 확정...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종교인 과세와 '무늬만 업무차'를 근절 및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는 1년만에 재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으며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

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기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과세는 2018년부터 개시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꺼리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행시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종교계 표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정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무늬만 업무차'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따라서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

지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슬롯머신 당첨금의 비과세 범위를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돼 폐지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nghwi@news1.kr



무늬만 업무용차 과세 강화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2억원을 주고 산 차를 매년 4000만~5000만원씩 4~5

년 만에 감가상각비로 전액 처리해 비용처리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과세 방안은 앞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법인세율 인상안과 병합 심사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추후 논의 끝에 이날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sanghwi@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문재인-안철수 '치킨게임' 정면충돌 직전...파국 향하나

문재인, 혁신전대 거부하며 현 지도체제 유지 선언
안철수, 마지막 혁신안 제시로 싸움 종지부 찍을듯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문안 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제안과 '혁신 전당대회' 역제안으로 한치의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결국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으로 향하는 듯하다.

문 대표가 3일 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를 거부하면서 현 지도체제 유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한 대결이 두 사람만의 정치적 상처로만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 한 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두 사람의 정면충돌은 당장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내며 당 전체를 더 큰 혼돈

속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

문 대표는 이날 "이제 당 대표인 제 책임으로 해나가겠다"며 문안박 연대 제안을 폐기하며 안 전 대표가 반대해 온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사실상 안 전 대표와의 결별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안 전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당의 총선체제 전환에 앞서 혁신이 먼저라면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해 왔다.

혁신 전대 역시 문 대표가 주도해 온 혁신위의 혁신안을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이 내놓은 혁신안을 올려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자는 제안이었다.

문 대표의 이날 선언으로 문안박 연대의 가능성을 두고 안 전 대표와 벌여 온 '핑퐁게임' 역시 종료된 셈이다. 문 대표는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표가 이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총선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전격 선언한 만큼 안 전 대표가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문 대표는 빠른 시일 내 총선거확산부터 구성하고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대표 측은 즉각 "당의 앞길이 걱정이다.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려된다"는 짧은 논평을 내놓기는 했지만 안 전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 는 서울시내에서 개인적인 약속을 갖고 있어 오늘 국회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문 대표의 회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 중도 성향의 '통합행동'은 물론 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 고 김근태(GT)계 모임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등 당내 제 세력들이 다양한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극단적인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두 사람 간 핑퐁게임에 침묵해 온 대다수의 의원들의 입에서 '양초의 난'이라는 비아냥이 제기될 정도로 당내 피로도가 쌓인 상황이라는 점을 문안 양측 모두가 의식해야 한다.

'양초의 난'은 국회의원 선수가 초선인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갈등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문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 이번 싸움의 종지부를 찍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 대표 주위에서 대표의 눈과 귀를 막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며 "혁신 전당대회가 가져올 변화의 바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 대표 주변의 친노(친노무현) 세력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전 대표가 마지막 혁신안으로 인적쇄신을 통한 인재영입을 예고한 상황이라 사실상 친노 진영의 총선 불출마 요구로도 해석된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일각에서 탈당설과 분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 전 대표의 결단은 야권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다시 정치권의 이목은 안 전 대표의 입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 간의 광주 방문 이후 이번 주 안으로는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잡아 놓지 않은 상태다. 이미 인재영입 혁신안을 마련하고 발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세 번째 혁신안 발표에서는 공천 혁신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혁신 전대는 물론 문안박 연대가 능성까지 달아 안 전 대표가 다시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irakoca@news1.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오른쪽)

당기강 잡기 나선 문, 의혹 논란 의원 '단호 조치' 지시

유성엽·황주홍·신기남·노영민·김창호 등 조사·징계 주문

(서울=뉴스1) 박은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당기강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무감사 거부와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표는 유성엽·황주홍 의원의 당무감사 거부와 당헌당규에 정면으로 위반한 해당행위로 규정, 당무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표는 두 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합당한 증론을 모아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각각 전북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과 황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지역위원회의 당무감사를 거부했다.

더불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에 휩싸인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해

서도 당무감사원 조사 후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아들의 로스쿨 낙제를 구제하기 위한 청탁 의혹, 노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표는 또 투자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창호 전 분당갑 위원장에 대해서 출당 조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 "이른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기 직전 가진 지도체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실 책장사' 노영민 "산업위원장 사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놓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2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저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온 질책을 받았다. 누구보다 철저히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반성한다. 이에 책임을 지고 산

업통상자원위원장을 사퇴한다"며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헤아려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당과 국민에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 측근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 건은 오늘 최고위에서 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mith@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4년간 폐지 유예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2017년 폐지... 법무부 "개정안 내고 대안마련 주력할 것"

(서울=머니투데이) 양성희, 이경은 기자 =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법을 폐지

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기간을 4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85.4%가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간을 2021년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시행이 10년을 맞아 제도로서 정착하는 시기인 점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분석 기간이 필요한 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5회로 정해져 있어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응시인원이 3000명 상단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존치를, 로스쿨협회의와 한국법학교수

회 등은 현행법대로 2017년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yang@mt.co.kr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시작부터 '삐그덕'

서울대 법대생 집단자퇴 등 반발...대법원도 "일방적 결정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양새롬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각계에서 반발이 쏟아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여론조사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대법원 등의 반발이나 부정적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 로스쿨협의회·학생 집단반발...서울대 로스쿨생 집단자퇴

법무부는 3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존치 세력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이라며 "법무부에 경솔한 입장 표명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민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로스쿨 진학자와 로스쿨 진학자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폐법"을 용인했다"며 비난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도 "사시 폐지를 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8년이 넘는 기간 지켜온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편협하고 근시

안적인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긴급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자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일방적 추진 안돼"...불편한 심기 드러내

법조 3륜 중 하나인 대법원도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가 로스쿨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오후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시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

다. 사시 폐지 유예는 법관 선발과 사법연수원 운영 등 대법원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사전 조율이 없던 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사시 폐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 국회 통과할까...야당 설득이 관건

법무부는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가 폐지되는 만큼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정하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시존치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과는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가운데 야당 법사위원들의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의 유예안에 대해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kukoo@news1.kr



'사시폐지 유예 반발' 서울대 법대생 전원 자퇴 의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기로 한 발표와 관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오후 긴급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법무부의 발표에 반발해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 유예안 기자회견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열린 '검찰실무 강의' 출석은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이후 로스쿨 내 모든 수업·시험 거부(351명 중 325명 찬성) ▲학생 전원 자퇴서 즉시 작성(350명 중 292명 찬성) ▲로스쿨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체의 수업등록 거부(350명 중 323명 찬성) 등을 의결했다.

또 ▲학생 전원이 작성한 자퇴

서를 학생회가 취합해 학교에 즉시 제출(345명 중 297명 찬성) ▲학생 전원이 교외에서 집단행동 참여(345명 중 295명 찬성) ▲학생 전원이 교내에서 집단행동 참여(345명 중 326명 찬성) 등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늘 미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 내일까지 자퇴서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학생회가 이를 취합해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에 학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법무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격앙된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의 결의사항을 보고 학생들이 정해진 물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피마 70분 부터
디자깅 130분 부터/개머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망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otestant Church of Boston

<판공성사>
12/6일, 13일, 20일 주일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목) 8pm

<성탄절 행사 & 미사>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금) 12:15pm
미사
12월 25일(금) 4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목)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금) 11:30 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City of Concord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00 /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요 기도회: 저녁 7:00

주요 관심: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 이민자 지원 / 이민자 상담

담당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3-0571 / 팩스: (781) 643-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Member of RE/MAX)

www.ganainrealty.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탈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8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경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링컨 프로
e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혀 미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덤에 새로 사함되며, 그리스도의 영원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용서, 부활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00
영양예배 주일 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유복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상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누구에게도 없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Efit카드 프로그램,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가격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UMS 대표이사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Ameren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한해 배스나트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역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입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미션호 지하광 / energy@xoom.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



박소나
변호사



Yoon Wa
공익연수생



박경명
서기관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패츠 리시버들 부상으로 브래디 고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몇 주간 패트리어츠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연습 행진을 달리던 패트리어츠는 브롱코스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정규시즌 MVP가 가장 유력했던 쿼터백 탐 브래디도 부진을 겪고 있다.

러닝백 디온 루이스의 부상을 시작으로 줄리안 에들먼, 대니 아멘돌라에 이어 랍 그롱코스키까지 부상을 당했다. 브래디의 패스를 받아줄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 전인 첫 9경기까지 브래디는 경기당 평균 4.67번 상대팀 선수와 부딪혔고, 2.33번 색을 당했다. 브래디는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루이스와 에들먼이 사라지면서 패트리어츠의 한 템포 빠른 패스 공격 역시 사라졌다. 아멘돌라까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패트리어츠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안정적인 공격은 자취를 감췄다.

빠른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브래디가 빠르게 패스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패스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브래디는 패스 러시에 노출되었다.

최근 2경기에서 브래디는 상대 수비수와 23번 부딪혔다. 경기당 평균 11.5번인데, 이전 9경기의 2배에 해당한다. 색을 당하는 횟수는 오히려 살짝 줄었지만, 이는 브래디가 패스를 할 곳이 없을 때 색을 피하기 위해 풋볼을 멀리 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브래디가 풋볼을 넘겨 받아 패스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초였다. 리그 평균보다 0.5초 빠르고, NFL에서 가장 빠르게 패스를 하는 쿼터백이었다. 빠른 패스 덕분에 상대 수비수는 브래디를 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의 리시버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 두 명이 사라지면 브래디는 더 오랜 시간 풋볼을 들고 있게 되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리시버가 없고, 그래서 브래디의 패스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색을 당하거나 수비수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앞으로 패트리어츠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시즌 후반부에 상대할 팀 중에는 텍사스, 제츠, 돌핀스 등 수비가 강한 팀들이 있다.

에들먼이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전체 패스의 24.3%를 받았고, 29.2%의 터치다운을 성공 시켰고,



빠르게 패스를 할 곳이 없는 탐 브래디가 상대팀의 패스 러시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전체 패싱 야드의 18.4%를 담당했다. 그롱코스키는 전체 패스의 19.4%를 받고 32.1%의 터치다운, 25.8%의 패싱 야드를 기록했다. 이 두 선수가 사라진 지금 브래디의 패스 공격력이 40% 이상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2경기에서처럼 브래디가 계속

해서 상대 패스 러시에 노출된다면 패트리어츠는 공격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 전설적인 쿼터백 존 엘웨이는 “몇 번 땅바닥에 구르게 되면 모든 쿼터백이 똑같다. 쿼터백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풋볼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너무 오래 쥐고 있게 된다” 라고

말했다. 브래디는 시즌 초반과 달리 앞으로 상대 수비수의 패스 러시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경기장 바닥에 쓰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브래디가 겪게 될 현실이다. jsi@bostonkorea.com

[MLB] '5년 1800만달러' 계약규모로 살펴본 박병호의 가치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5년간 최대 1800만달러. 박병호(29)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실현했다.

미네소타 구단은 2일(한국시간) "박병호와 기본 연봉 4년 1200만달러, 5년째 옵션을 포함해 1800만달러(약 208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병호는 2016년과 2017년에 275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2018년과 2019년에는 300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2020년에는 팀 옵션이 걸려있는데, 미네소타가 박병호를 잔류시키고자 한다면 연봉 650만달러를 받고, 뛰지 않을 경우 바이아웃 금액 50만달러를 수령한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 박병호의 포스팅 응찰액수가 1285만달러로, 지난해 피츠버그가 강정호(28)에게 써낸 500만2015달러보다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계약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강정호는 5년 최대 1625만달러에 계약을 맺었고, 4년간 보장된 액수는 1100만달러였다. 박병호의 계약 규모(보장액 1200만달러, 최대 1800만달러)는 강정호보다 약간 많은 정도다.

지난 2012년 포스팅 응찰액 2573만7737달러33센트를 받았던 류현진(28·LA 다저스)은 6년 36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병호보다 정확히 두 배가 많은 액수다.

프로야구 FA시장에서 1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액수지만 박병호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했다.

미네소타가 대표적인 스몰마켓팀으로 많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미네소타는 올 시즌 연봉으로 총액 1억236만861달러를 지출해 30개 구단 중 19위였다. 박병호의 연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미네소타는 포스팅 금액을 포함해 올시즌에만 박병호에게 1760만달러(약 204억원)를 지출한다.

박병호는 포스팅 금액에서 2000년 이치로 스즈키(시애틀 매리너스·1310만달러)에 이은 아시아 야수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만족하게 됐다. 당시 이치로는 포스팅 액수와 비슷한 규모인 3년 1400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박병호가 첫 해 받을 연봉인 275만달러(약 31억8000만원)는 올 시즌 KBO리그 '연봉킹'인 김태균(한화·1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물론 연봉 1000만달러가 넘는 선



박병호(29)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수가 많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큰 액수는 아니다. 대개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지 않은 '초년병'들이 자유계약 선수를 앞두고 받는 금액이 200만~500만달러선이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월드시리즈 우승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주전 외야수 로렌조 케인(272만5000달러), 메이저리그 최단신 선수로 유명한 내야수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268만7500달러) 등이 박

병호와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

1루수/지명타자의 포지션에서는 미치 모어랜드(텍사스 레인저스·295만달러)가 박병호와 근접한 몸값이었다. 모어랜드는 올 시즌 132경기에 출전해 0.278의 타율에 23홈런 85타점 0.482의 장타율 등으로 팀의 5-6번 타수를 지켰다.

올 시즌 미네소타 팀 전체로 보면 275만달러는 전체 10위, 야수 중에서는 조 마우어(2300만달러), 커트스

즈키(600만달러), 트레버 플로페(480만달러)에 이은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미네소타의 선발전전에 합류해 9승 5패 평균자책점 3.92로 준수한 활약을 한 좌완 토미 밀론이 박병호와 비슷한 277만5000달러를 받았다. 투타 간판인 조 마우어(2300만달러)와 리키 놀라스코(1200만달러) 등 2명만이 1000만달러 이상의 연봉이었다. starburyny@news1.kr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신청** 부터!

인터넷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

신고·신청 대상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1997. 4.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k.nec.go.kr>
- 공관방문, 순회집수, 우편, 전자우편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 2016. 3. 30. ~ 4. 4. (공관별로 기간중 6일 이내)

인터넷 검색창에 **재외선거** 를 쳐보세요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9,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대 / 2009년 100대 부동산사 /
2010년 100대 부동산사 / 2011년 100대 부동산사 / 2012년 100대 부동산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비지니스 빈자리 병원건물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Investme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시상권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다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남: 95만원 / 여: 7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학적 검사 (상체계측, 비인도, 사력, 혈압)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흉부엑사 검사 (일반, 대방입, 흉부, 탄소, 전선선) 5. 상체계측 검사 (흉부 X-Ray, EKG, 노폐물 배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귀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고령, 흉근,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흉부 (E)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기본 검사 (상체계측, 비인도, 사력, 혈압)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흉부엑사 검사 (일반, 대방입, 흉부, 탄소, 전선선) 5. 상체계측 검사 (흉부 X-Ray, EKG, 노폐물 배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귀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고령, 흉근,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뇌 MRI 2. 뇌 MRI 3. 전신방역 CT 4. 흉부 (E) CT 5. 심장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경부관 초음파 8. 전선선 초음파 9. 부인(내)자궁 초음파 10. 골밀도 검사 11. 대장내시경수술

당일 종합검진

남: 60만원 / 여: 60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E)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1. 갑상선 초음파 2. 부인(내)자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밀도 검사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복부초음파 + 대방입 + 호르몬 + 호르몬대안(심장관영양, 유방관영양)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P, VIP 종합검진 포함: 대입세탁, 세공
 * 검사시간 및 예약
 - 당일 종합검진: 9:30am~12:30pm (예약)
 - 당일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인실/AMB/AMB, 예약)
 - VIP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인실/AMB/AMB, 예약 / 공명치료
 - VVP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인실/AMB/AMB, 예약 / 공명치료



2008년부터 해외동포 건강검진 시행 대림성모병원

- 5개의 특성화된 전문 센터 구비
- 15개 진료과에 40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800여명의 의료진
- 대림성모병원 대상: 과장선 부분 5년 연속 대상 수상
- 약 2,500여명의 해외동포 및 외국인 검진 및 수술 경험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건강검진 안내

- 1. Royal Gold 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2. 색연두구 제공 / 3.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 제공
- 4. Royal Gold 검진은 PCK UP SERVICE 제공 / 5. 검진시행부터 결과상담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Royal Gold 검진	남성: 215만원 여성: 225만원
입원 종합 검진	남성: 84만원 여성: 75만원
당일 종합 검진	남성: 50만원 여성: 60만원 (대방입 추가: 남성 60만원 여성 70만원)
복화 검진	▶ 뇌 정밀검진: 92만원 (소요시간 1시간) ▶ 심장 정밀검진: 17만원 (소요시간 2시간) ▶ 심장정맥 MD CT: 23만원 (소요시간 30분) ▶ 골다공증 검사: 5만원 (소요시간 30분)

전문센터 및 주요수술 유방입갑상선 센터 / 소화기내시경 센터 / 객주잠열 센터 / 중풍차데 센터
 하지장애류 · 다한증 클리닉 / 부인과 클리닉 / 복강경 클리닉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010.345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소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청사	617-635-4500
보스턴청사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문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건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회현정 골프 레슨	603-401-7990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영상대여

해피영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만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셔츠/드라이클리닝 출세일합니다 (픽업/달리버리 가능) 뉴햄프셔/매사추세츠
T. 857-800-4628

뉴스타부동산 렉싱턴 사무실에서 Receptionist 로 일할 분을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인 이력서를 이메일(jy.p617@hotmail.com)로 보내주세요.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썬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2 베드룸 아파트먼트 렌트, 크랜스턴 로드 아일랜드
T. 401-943-7178, 401-383-7311

N[구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구인]
품격있는 가게에서 아가씨 구합니다
침식제공, 좋은 보수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
T. 210-501-9448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N[매매]
10년된윙가게 월매상 \$42,000,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N[매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매 합니다
T. 478-213-3089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한인 감독 애니메이션 '굿 다이노' 흥행 대박 조짐

추수감사절 '흥행몰이'... 픽사 첫 한인 감독 피터 손 총지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한인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피터 손(38·한국명 손태운)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인 영화 '굿 다이노'(The Good Dinosaur)가 흥행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를 겨냥한 애니메이션 영화 '굿 다이노'는 개봉 첫날인 25일부터 닷새간 북미 지역에서 박스 오피스 5천560만 달러(642억 7천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추수감사절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겨울왕국'(2013년 개봉) 9천300만 달러, '토이 스토리2'(1999년) 8천만 달러, '라퐁젤'(2010년) 6천700만 달러에 이어 네 번째 흥행 기록이다.

'굿 다이노'는 주말인 27일부터 사흘간 박스 오피스 3천919만 달러(453억 3천만 원)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영화는 '토이 스토리'·'몬스터 주식회사' 시리즈와 '인사이드 아웃'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픽사(Pixar)에서 내놓은 신작으로 꼬마 공룡 알로의 모험과 성장기를 담았다.

'굿 다이노'는 대자연의 풍경을 실사 영화 못지 않은 정밀함으로 그려낸 배경 디자인으로 개봉 전부터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내년 초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애니메이션 부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총괄 지휘한 한인 피터 손 감독

문에서 강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총괄 지휘한 한인 피터 손 감독도 화제를 낳고 있다. 한인이 픽사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뉴욕 출신인 피터 손 감독은 '굿 다이노'로 감독 데뷔를 하기 이전까지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브레이브' 등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주요 작품에서 스토리 아티스트로 활약해 왔다.

애니메이션 '굿 다이노'는 지난 2009년 당초 밥 피터슨 감독이 총괄 지휘를 했다가 중단된 작품이다.

픽사 역사상 최초로 모든 제작 과정을 중단했다가 피터 손 감독이 후임 감독으로 지명돼 골격을 수정하고 제작 부문 스태프를 대거 교체하는 진통을 겪었다.

jongwoo@yna.co.kr

청룡의 선택은 달랐다, 이번과 적중 사이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통 영화상의 선택은 역시 달랐다. 그간 청룡영화상은 대중상 영화제 수상 결과와 종종 비교돼 왔다. 흥행 성과에 따른 수상 결과가 아닌, 작품의 영화적 성취에 따른 수상 결과로 대중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왔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청룡영화상은 이번인 듯 이번 아닌 수상으로 영화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외에는 이견 없는, 공정하면서도 합당한 수상 결과로 영화상의 권위를 지켰다.

영화 '암살'은 지난 26일 저녁 8시45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진행 김혜수, 유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청룡영화상은 '사도' 유아인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을 남녀주연상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유아인은 영화 '베테랑'의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 역으로도 올해 여름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배우였기에 수상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송강호, 이정재, 정재영, 황정민 등 쟁쟁한 선배들이 후보로 올라 있어 좀처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이정현의 수상은 다소 의외이면

서도 청룡영화상다운 결과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배우 천우희가 '한공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바 있다. 이정현 역시 체급이 낮은 영화에 출연한 자신에게 상을 준 것에 대해 "굉장한 분들이 계셔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작은 영화라"라며 "이를 기회로 다양성 영화들이 더 관심을 받아서 이것으로 한국 영화가 더 발전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수상자(작) 명단이다.

- ▲최우수작품상=(암살) ▲감독상=류승완(베테랑) ▲남우주연상=유아인(사도) ▲여우주연상=이정현(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남우조연상=오달수(국제시장) ▲여우조연상=전혜진(사도) ▲신인남우상=최우식(거인) ▲신인여우상=이유영(간신) ▲신인감독상=김태용(거인) ▲음악상=방준석(사도) ▲미술상=류성희(국제시장) ▲편집상=양진모(뷰티 인사이드) ▲촬영 조명상=김태경, 홍승철(사도) ▲기술상=조상경, 손나리(암살) ▲각본상=김성제, 손아람(소수의견) ▲최다관객상=윤제균(국제시장) ▲청정원 단편영화상=유재현(출사) ▲청정원 인기스타상=이민호, 박보영, 박서준, 김설현

aluem_chang@news1.kr



'사임당' 이영애 "다시 한류열풍? 장담할 수 없어"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작품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영애는 30일 오전 11시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SBS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이하 사임당) 현장공개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류열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지 묻는 말에 "한류열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에 때문에 한류열

풍 이전에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작품"이라며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극중 이영애는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와 신사임당 1인 2역을 맡아,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 일기와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간다.

'사임당'은 조선시대 사임당 신씨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천재화가 사임당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다. 2016년 하반기 SBS를 통해 방송된다.

poolchoya@news1.kr



'슈가맨' 박정현 vs 거미, 역대급 가창력 대결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슈가맨' 박정현과 거미가 가창력 대결을 펼쳤다.

지난 1일 밤 10시5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이하 슈가맨)에서는 유희열과 거미, 윤종신과 박정현이 팀을 이뤄 역주행 송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윤종신과 박정현은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를 열창했다. 두 사람 무대를 본 유재석은 "뮤지컬 같았다"고 말했고, 상대팀 유희열 역시 "겨울의 왕국"을 보는 줄 알았다"고 칭찬했다.

이어 유희열과 거미는 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무대를 선보였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 결과는 총 45:55로 유희열 팀이 승리했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1월 23일 ~ 11월 2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7.8%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26.6%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0.3%
4	MBC	주말드라마(엄마)	18.2%
5	KBS1	KBS9시뉴스	16.8%
6	KBS2	해피선데이	14.8%
7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4.6%
8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4.4%
9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4.1%
10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13.6%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조강지처)
3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4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5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6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9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0	MBC	수목미니시리즈(달콤살벌패밀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못먹는 감 (Sour Grapes)	San E
02	Boys And Girls (Feat. Babylon)	지코 (ZICO)
03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4	꿀잼	다이내믹 듀오
05	안아보자	포맨
06	스물셋	아이유
07	HOT PINK	EXID
08	지못미	iKON
09	I (Feat. 버벌진트)	태연(Taeyeon)
10	No Make Up	Zion.T

숫자 퍼즐 (Sudoku)

7				5	1		
8		6					2 4
2	1						9 3
			6 3				7
		1				9	
	4			2 7			
9	2						4 5
1	6					3	7
		7	8				9

12월 6일 - 12월 1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p> <p>● 운수: 기만히 있으면 도태될 뿐이고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마음속에는 사랑의 불길기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은 사랑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소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p> <p>● 운수: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능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주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때입니다.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범띠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기회로</p> <p>● 운수: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기회라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머지않아 즐거운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작은 것에 욕기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못마땅한 점을 발견하고 후회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니 갈등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토끼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p> <p>● 운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어려우니 고민이 많습니다.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 ● 애정: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용띠 큰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p> <p>● 운수: 사업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됩니다. 큰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주입니다. ● 금전: 일석이조의 운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우정이라고 생각해왔던 감정이 급속히 연애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뱀띠 주위 상황에 잘 대처해야</p> <p>● 운수: 지나치게 자기주장만을 고집해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화합하지 못 하는 것이 결점이 되어서 일이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어디를 가든지 정신을 차리고 주위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성격으로 인해서 아내나 남편에게 편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타고난 천성이라 어쩔 수 없군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p>
<p>말띠 신중을 기해야</p> <p>● 운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더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때입니다. ● 금전: 백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 애정: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활을 자기 위주로 하기가 쉬운 주이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양띠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p> <p>● 운수: 아무리 좋은 칼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 금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탐욕스러워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 애정: 이성문제로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운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주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8일 길일, 9, 12일 주의.</p>	<p>원숭이띠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p> <p>● 운수: 박력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재설정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평소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주입니다. 직장인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이제는 정말 뭐가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닭띠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p> <p>● 운수: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급하게 뛰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재충전을 해나가면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 금전: 돈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갈 길이 따로 있는 것, 다시 만날 인연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편하게 생각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6, 7일 길일, 8, 11일 주의.</p>	<p>개띠 우선순위를 정해서</p> <p>● 운수: 할 일은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처리를 하세요. ●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돈은 들고 돈은 것입니다. 유통이 되어야 돈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 애정: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구애에 넘어가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돼지띠 처음과 끝이 같아야</p> <p>● 운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때에 신의가 더욱 깊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美 외신 "싸이, 익살스러운 'DADDY'로 컴백"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싸이가 음원차트를 휩쓴 가운데, 외신들도 줄지어 그의 컴백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해외에서의 뜨거운 관심도 증명했다.

지난 1일 0시 공개된 싸이의 새 앨범 '칠집싸이다'의 더블 타이틀곡 '나팔바지'와 '대디'(DADDY)는 오전 8시 기준 현재 멜론, 지니, 올레, 엠넷, 네이버뮤직, 몽키3, 소리바다 등 총 7개 음원차트 1위와 2위를 석권했다.

또 신해철의 추모곡으로 알려진 수록곡 '드림'(Dream) 역시 빅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싸이의 신곡이 국내 8개 음원차트 올킬에 성공했다. 또한 싸이와 '싸이 나팔바지'가 앨범 공개 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를 점령하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다. 미국 빌보드, 퓨즈TV, MTV, 롤링스톤, BBC 등 수많은 해외 우수 언론매체들이 앞다퉀 싸이의 컴백 소식을 집중 조명하며 호평을 보내고 있다.

퓨즈TV는 "싸이의 새 앨범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언급, 해외 유명 아티스트 애드 시런, 윌 아이엠 등이 앨범에 참여하며 기대



감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롤링스톤은 "2012년에 '강남스타일'로 화제를 모은 싸이가 이번에는 익살스러운 '대디'로 돌아왔다"며 싸이의 신곡 '대디'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밖에 싸이의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도운 스쿠터브라운 (Scooter Braun)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싸이의 'DADDY' 뮤직비디오를 올리며 싸이의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싸이의 '칠집싸이다'는 자이언티, 씨엘, JYJ의 김준수, 전인권, 개코 등 국내 특급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윌아이엠, 애드시런 등 글로벌 스타들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싸이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곡부터 싸이 특유의 흥이 담긴 곡까지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

lee1220@news1.kr



JTBC, '2015 미디어어워드' 4관왕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JTBC가 가장 신뢰받고 유용한 미디어로 선정됐다.

최근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2015 미디어어워드'에서 JTBC는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가장 유용한 미디어', '유료방송 콘텐츠 다양성 부문 우수상(냉장고를 부탁해)', '유료방송 콘텐츠 교양·다큐멘터리 부문 우수상(특류우)'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다. 이는 '미디어어워드' 전체 8개 부문 중 절반에 해당되는 수상으로, 한 해 동안 뛰어난 콘텐츠를 방송한 JTBC의 저력이 입증됐다.

JTBC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3.5388)와 '가장 유용한 미디어'(3.5854)로 선정됐다. 신뢰성 부문은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가 정확하고 건전하며 전문적이

고 믿을만한지, 상반된 보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인지(이하 준거성)를 평가했다. JTBC는 뉴스 및 정보의 정확성, 신인도, 전문성, 준거성 등 총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평점 역시 전년대비 0.15점 이상 상승했다. 2위는 한겨레(3.4104), 3위는 경향신문(3.3375), 4위는 YTN(3.2979), 5위는 KBS(3.2238)가 차지했다.

JTBC는 유용성 부문(3.5854)에서도 2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유용성 부문은 다양하고 흥미 있는 뉴스 및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는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뉴스 및 정보를 다루는지, 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한다. JTBC는 공정성 부문에서도 3.2824점을 기록하며 1위 YTN(3.2834)와 0.001점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reddgreen35@news1.kr

'2015 MAMA' 빅뱅, 올해의 가수상 수상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그룹 빅뱅이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다.

빅뱅은 2일 저녁 8시(한국시간) 홍콩 AWE에서 열린 '2015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차지했다.

지드래곤은 "언제나 상을 받는 것은 떨리는 일 같다. 빅

뱅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좋은 노래를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라며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상에 걸맞는, 아깝지 않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 부담감도 커지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poolchoya@news1.kr



천지보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M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G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이광수, 8kg 생선 탈 쓴 연기 도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광수의 연기 열정과 도전이 눈길을 모은다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이광수 주연의 영화 '돌연변이'(감독 권오광)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광수는 생선 탈을 쓰고 '돌연변이'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가 현장에서 꼼꼼하게 동선을 확인하고, 사진 리허설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8kg에 육박하는 무거운 생선 탈을 착용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호흡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남다른 열정이 느껴진다.

또 다른 사진에서 이광수는 권오광 감독과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자문을 구하고 연기 조언을 받고 있다. 그는 촬영 내내 어깨의 움직임이나 걸음걸이, 말투 등으로 감정을 표현해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나리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이광수의 깊은 고민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권오광 감독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돌연변이' 제작보고회에서 그를 향해 "매순간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역 없이 모든 장면을 직접 소화한 이광수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광수는 '돌연변이'에서 생선인간 박구역을 등장하여 한국영화 사상 전례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선보인다. 영화, 드라마,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변신과 도전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SBS | 돌아온 황금복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MBC | 내 딸 금사월 |
| 4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5 | KBS | 우리집 꿀단지 |
| 6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KBS | 다 잘될거야 |
| 9 | MBC | 내일도 승리 |
| 10 | MBC | 달콤살벌 패밀리 |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위대한 유산 |
| 2 | SBS | 뉴 스타킹 |

티보플레이 11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더 폰 | 손현주, 엄지원 |
| 2 | 돌연변이 | 이광수, 박보영 |
| 3 | 그놈이다 | 주원, 유해진 |

'더 폰', 신인 감독의 추격 스릴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더 폰'은 1년 전 살해당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남자가, 과거를 되돌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벌이는 단 하루의 사투를 그리는 영화다. 흥미롭게도 '더 폰'은 타임슬립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추격 스릴러의 진부한 공식에서 탈피하는 시도를 보여줬다. 이에 예측을 불허하는 전개로 관객들의 몰입도 조성에서 탁월한 힘을 발휘했다.

특히 타임슬립 장치인 휴대전화의 활용이 흥미롭다. 개연성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과감하게 휴대전화를 타임슬립 장치로 활용, 배우들과 연출력으로 현실감을 더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토리라인이 불친절할 수 있지만 탄탄한 전개 덕에 관객들 역시 무리 없이 극에 녹아들며 판타지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24.99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본문에 기재된 가격 정보, 할인 혜택은 일부 상품에 대한 것으로, 적용 대상 상품과 기간은 별도 안내를 받으실 때 The Best On Demand 4, TBO On Demand TV와 관련하여 TBO Play, 콘텐츠로 인해 유출된 TBO 내 손에 유출된 TBO Play, 콘텐츠가기에 단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6만~7만, Asking **\$20,000**
6.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해 Chestnut Hill 쇼핑센터와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1.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12. 렌트 : 25 Baker St, Belmont, 3bed 1.5 bath 1,500sf, 벨몬트 High school에서 5분거리, **\$2,2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5회

몸짓 언어의 비밀...

가끔 한국의 인터넷 교양프로그램 중 방송인 조영구 씨와 아나운서 이정민 씨가 진행하는 '여유만만'을 시간이 되면 시청한다. 여러 가지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함께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얻게 하는 기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한다. 어제(12월 1일)는 '백 마디 말보다 몸짓이 중요한 이유는?'이란 제목 아래 전문가들의 생각과 지식적인 조언과 더불어 솔루션까지 안내해주는 것이다.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일상에서 별 생각없이 지나쳤던 나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라 전달된 나의 말짓과 몸짓.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 부모로서 말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자책의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른다. 특별히 첫 아이(딸아이)를 키우며 경험이 부족하고 미국 학교생활에 미흡한 탓에 과제물이나 그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아빠인 남편은 만 6살 때 이민을 온지라 부족함이 없었지만, 엄마는 청소년기를 마치고 왔기에 부족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은 어느

정도 따로 정해져 있기에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따른 부분은 엄마의 몫이었기에 더욱 부담스러웠던 기억이다.

지금 생각하면 세 아이를 키우며 여느 엄마들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활동적으로 아이들을 돕고 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미흡했던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부족한 엄마를 나무라지 않고 세 아이 모두 잘 자라주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더욱이 첫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엄마가 조금 더 잘해주었다면 딸아이가 많이 수월했을 텐데 혼자서 마음 속으로 속상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가끔 세 아이와 만나면 지난 어린 시절의 얘기를 꺼내놓고 추억을 나누기도 한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툭툭 내뱉어진 말과 행동이 때로는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드는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 어떤 마음을 전달할 때 말짓 언어보다 먼저 몸짓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더욱 솔직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리라

.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표현도 더욱 솔직하게 표현되지만, 화가 났을 때의 표현마저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그 어떤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서로를 읽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첫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이다. 그 첫인상은 또한 그리 쉬이 바뀌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 잠깐의 시간에 상대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자세와 몸짓으로 그 사람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관계에서의 만남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보내는 호감이나 비호감 또는 상대방에게서 오는 호감이나 비호감 정도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한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거짓과 진실의 비밀 정도는 여자의 육감으로 아내는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남편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열이 올라가 뜨거운 부분

을 식히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뒤따르는데 뒷목을 쓰다듬는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의 질문에 평상시와 다른 방향을 응시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어찌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여자의 육감이 아니더라도 남편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어찌 그것이 꼭 남편에게만 해당될 일이겠는가. 남편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알 일이다.

우리(몸과 마음 정신) 속에 자리한 의식적인 것은 말이고 무의식적인 것은 몸짓이라고 한다. 옛 어른들의 자식에 대한 예절교육도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행동을 덮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에 따라 무의식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무의식이 진화한 것이 몸짓의 언어라고 한다. 요즘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 그들이 쓰는 언어도 때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몸짓 언어의 비밀을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장닭이 우는 소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12월에 들어섰다. 대설大雪 근방이다. 겨울은 문턱을 넘어섰다는 말이다. 바람이 불어도 더 떨굴 낙엽도 없다. 굵은 나무가지는 뼈대만 앙상하고 을씨년스럽다. 전직 대통령의 부음을 들었다. 거산巨山은 YS의 호라 했다. 거친 세월 바람엔 거산巨山도 흔들리고 쓰러진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건 날씨 탓만은 아니다. 그의 아들이 감옥에 갈 적에 '우째, 이런 일이' 라고 한탄했다던데. '우째, 이런 일이'

YS가 내 눈에 보인 건 그가 사십대 초반일 때 즈음일 게다. 장년壯年의 그는 정치인 같지 않아, 도시스러워 보였다. 그의 자연스러운 머리결은 귀를 덮고도 남았다. 그는 장발단속에 예외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그가 신은 앵클부츠는 연예인처럼 보였다. 그를 보면 젊은 나도가

꿈은 가슴이 설레었다. 그가 뭔가 앞장서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내 선배 하나는 그를 결혼식 주례로 세웠다.) 살벌하던 시절, 그의 모습은 이따금 텔레비전에서 봤다. 하지만 목소리는 텔레비전에서도 듣지 못했다. 사진 한장 달랑 얼핏 화면에 비추던 시절이었던 거다. 선거 유세를 따라가 그의 웅변을 듣기에는 내가 너무 바빴다(?). 내게 그 양반은 그저 비주얼이었고, 오디오는 없었다. 대신 카더라 통신으로 귀동냥으로 그의 안부를 들었던 시절이다. 장발과 민주화는 동의어가 아니다. 하지만 같은 뜻으로 새기던 시대였던 거다.

사진에서 봤다. 그의 연세가 높아지면서, 흰머리가 많아졌다. 염색을 했고, 짧게 머리를 다듬었다. 높은 직책을 맡았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백발에 장발이라면 더욱 친근하고

, 관록이 붙어 보였을 게고 더욱 아름답지 않았겠나 싶다. 잘 정돈되어 짧은 '새마을 스타일' 에서 그의 정적이던 박 전 대통령모습도 얼핏 보였으니 하는 말이다. 내게 그는 장발을 휘날리며 거침없던 모습으로만 남아있다.

이육사의 광야이다. 하늘이 열리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듯 싶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차마 이곳을 범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흘러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목계木鷄. 장자에 나온다. 다른 닭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YS가 닭장차에 실려가며 한 말이다. 절묘하다. 새벽에 울지 않는 닭은 수탉이 아니다. 햇대에 올라 울어야 한다. 목계木鷄 울어야 당당한 수탉인 게다. 검붉은 벼슬을 곧추세운 장닭은 늙름하다. 딱벌어졌고 적갈색 깃털에 덮힌 가슴은 윤기 흘러 위엄이 넘친다. 그래서 자유한 야성의 장닭은 씩씩해서 차라리 아름답다. 그는 정녕 고개를 꼴꼴이 세운 수탉이었고 장닭이었으며 목계木鷄였다. 또하나, 그는 타고난 씨움닭이기도 했다. 목을 물러 피를 흘려도 맹렬히 달려드는 투계鬪鷄였던 터. 검투사를 보는 듯했더랬다. 그가 그랬다.

까막득한 날에 장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장닭이여 안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 22:61)

제7탄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상담 및 문의

안안과 함께하는 휴람 케어센터,
보스톤 큐리아 T. 617-955-9112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안압검사, 백내장, 녹내장, A&P/B&P 초음파검사, 안저촬영검사, 세극광 수정체 검사
~~25~~ 만원 → **20** 만원

2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 만원 → **109**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 별도)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 만원 → **150**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 만원 (DNA(10만원 상당) 안 종합검진 포함)

※ 수술 내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 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라섹을
놓치셨다면...**

20~30대 어라(아기)유혹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해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등을 돋보기를 통해 보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안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안안과 함께하는 휴람 케어센터,
보스톤 큐리아 T. 617-955-9112



해안외과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9. 레드 클라우드의 빛나는 승리 (1)

아칸소 강 남쪽의 아라파호 족과 합류(계속) 현재의 콜로라도 주 지도를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은 애리조나 주 접경에 약간 있을 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백인들은 샌드크리크 학살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불평등조약에서 규정했던 인디언보호구역의 땅 제공은 계속 미루어 오다가 2년이 지난 1867년 10월 28일에 또 하나의 조약(Medicine Lodge Treaty)을 맺고 인디언보호구역의 크기를 당초 약속했던 것의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

9. 레드 클라우드의 빛나는 승리 플래트강 다리 전투

라코타족과 사이엔족은 샌드크리크 대학살에 대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1865년 5월 20일부터 며칠간 오리건 트레일과 보즈만 트레일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플래트강 다리 요새를 공격하고, 오리건 트레일의 역마차역인 Deer Creek Station, Sweetwater Station과 St. Mary's Station을 습격하고 지나가는 마차열차를 약탈하는 등 백인의 동서 교통을 심하게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디언으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5월말에는 오리건 트레일의 민간인 통행을 금지시켰다. 오리건 트레일이 통제되자 인디언들의 공격대상은 남쪽에 개설된 또 다른 동서횡단마차길인 '오버랜드 트레일(Overland Trail)' 로 옮겨 갔다.

한편 북부 대평원의 거점 요새인 라라미 요새에는 토마스 문라이트(Thomas Moonlight) 대령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는 불필요하게 인디언을 자극하는 일을 저질렀다. 약 일 년 전 사이엔족이 Lucinda Ewbanks라는 백인 여자와 어린 아이 한 명을 납치했었다. 라코타 수우족의 한 지파인 오글라라족은 그 백인 두 명을 돈을 주고 사서 함께 살고 있었다. Two Face와 Black Foot라는 이름을 가진 중간간부급 오글라라족 두 명이 그 백인들을 데리고 라라미요새로 왔다. 그들은 미군과의 평화를 원한다는 제스처로 백인들을 미군 측에 넘기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문라이트는 그러한 사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납치됐던 부인의 분명한 항의와 경험 많은 민간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인디언의 목을 매달아 죽여 버렸다. 죽은 뒤에도 몇 달 동안이나 교수대에 그대로 매달아두어 요새를 찾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무렵 미군과의 적대행위를 끝내고 미군의 인디언정책에 순응하는 라코타족의 브틀레지파와 아라파호족 약 1500명은 라라미요새 인근에 살고 있었다. 두 명의 인디언 처형 사건으로 요새 인근의 인디언들이 마음이 변하여 대적해 올 가능성을 두려워 해 인디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을 동쪽으로 약 500km나 떨어진 네브래스카의 커니요새(Fort Kearney)로 6월 11일부터 이주시키기 시작했

다. 그런데 6월 13일 오글라라 라코타족의 전설적 전쟁 영웅 크레이지 호스가 이동 중의 인디언을 찾아와 더 이상 미군들과 함께 살지 말고 오글라라족과 함께 살 것을 권유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호수 책임자를 포함한 5명의 미군을 죽이고 북 플래트강을 넘어 북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지파의 인디언들과 합류하였다. 문라이트는 이 사건에 크게 당황하여 도주한 인디언들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라코타 전사들에게 역습을 당해 타고 갔던 말들도 다 빼앗긴 채 거의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라라미 요새(Fort Laramie)로 되돌아오는 수모를 당했다. 문라이트는 거듭된 실책으로 7월 7일 요새 사령관직 해임과 동시에 불명에 제대를 당했다.

플래트강 다리는 오리건 트레일과 보즈만 트레일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동서 교통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다. 세인트 루이스나 캔자스 시티 지역으로부터 오리건 트레일을 따라 서쪽으로 오다가 이 다리를 건너하면 보즈만 트레일이 시작된다. 1863년부터 시작된 백인들의 통행 본격화로 라코타 인디언들은 들소 사냥에 지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늘 보즈만 트레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보즈만 트레일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859년에 건설된 300m 길이의 플래트강 다리를 공격하기로 정했다. 다리 남단에는 군 외곽 초소가 있었다. 7월 20일 3000명에 달하는 인디언 연합군 전사들이 파우더 강을 떠나 남쪽으

로 180km나 떨어져 있는 플래트강 다리를 향하여 출정했다. 연합군은 레드 클라우드, 로만 노즈, 크레이지 호스, 말을 두려워 한 사나이 등 쟁쟁한 전투추장들이 이끌었으며 전과 다르게 매우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전투경험이 적은 신참 전사들은 전투 전문부족인 개병대(Dog Soldiers) 등이 감독했다.

드디어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군 초소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또한 오리건 트레일을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플래트강 다리로 접근 중인 마차열차를 습격하여 마차에 실려 있던 많은 물품들을 약탈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29명이 사망한 데 반하여 인디언은 8명 정도의 사망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플래트강 다리에서 미군이 크게 당한 것을 응징하기 위하여 코너(Patrick Edward Connor) 장군이 이끄는 2000명의 대규모 병력이 이 지역으로 접근해 오기 전에 인디언들은 파우더 강가의 인디언 캠프로 돌아갔다.

코너의 파우더강 원정

보즈만 트레일을 둘러싸고 인디언과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자 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인디언의 본거지인 파우더강 일대의 인디언 전사들을 소탕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9 화랑세기(花郎世紀), 서문(序文)(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라인의 눈과 마음으로 동승(同乘)하길 바란다(대역원문은 [] 표로 인용하며 그의 대역문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화랑은 선도(仙徒)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치 연(燕)나라의 동산(桐山), 노(魯)나라의 태산에서 한 것과 같다.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고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었다.]

선도(仙徒)는 선의 무리들을 말함이며 신선의 도, 즉 신선의 도를 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는 신라를 가르킨다. 삼국사기에 보면 제21대 소지왕(마립간) 9년과 제22대 지증왕 때 시조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을(奈乙)에 신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하고 화랑을 설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받들게 했다. 이에 앞서 범흥대왕이 위화랑(魏花郎)을 사랑했는데, 화랑이라 불렀다. 화랑이란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제23대 범흥왕은 제22대 지증왕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범흥왕의 딸이다. 지소태후의 어머니는 소지왕의 딸인 보도부인이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숙부인 임종갈문왕(범흥왕의 동생)과의 사이에서 제24대 진흥왕

을 낳았다. 제21대 소지왕(비처왕)이 서지는 있었지만 적자가 없어서인지 왕위는 보습갈문왕의 아들인 지증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적자가 없었던 것 보다 더 심각한 왕위 쟁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왕의 왕비는 선혜왕후인데 그들 사이에서 딸 하나 보도부인(保道夫人)만 있다. 그리고 후궁인 연제부인 박씨로부터 아들인 산종(山宗)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산종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내물왕의 증손자이며 소지왕과는 6촌인 지증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소지왕의 후궁 연제부인은 방계의 지증이 왕위에 오르면서 지증왕의 제1왕후로 선택되었다.156) 이 지증왕은 '신라' 라는 국호를 정했고 또한 마립간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로서 중국과 동일하게 '왕' 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장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방행정망을 정리했고 또한 우경(牛耕)을 권장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려고 노력하였다.

156) 지증왕과 연제부인의 설화는 삼국유사(기이편)와 삼국사기(김유신열전)에 수록되어 있다. 지증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옥경(玉璽)이 가장 큰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옥경은 임금의 성기를 높혀 이르는 단어이다. 그의 성기는 왕들 뿐만 아니라 단군 이래 모든 한민족 남자들 중에서 가장 컸다. 그 크기가 무

려 1자5치로 약 45cm 였다.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과는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 한 끝에 커다란 뽕덩어리(여자의 뽕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를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은 음부도 큰것으로 추측하여 그 배변의 주인을 찾아보니 모랑리(현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사는 키가 7척5치(약 2m 25cm)나 되는 여자였다. 이렇게 어렵사리 찾은 여자가 바로 제1왕후인 연제부인이며 범흥왕의 어머니이다. 이 전설의 의미는 방계에서 왕이 된 지증은 곧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성기의 크기는 바로 왕권과 결부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인들이 숭상했던 '성의 능력' 을 과시해서라도 그의 위상을 높여야만 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왜냐면 연제부인이 소지왕의 후궁이었다. 소지왕이 수도인 월성에서 아주 멀고 변방인 날이군(현 경북 영주시)까지 야간 잠행을 하면서 사랑을 키운 벽화부인과의 사랑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박창화가 필사한 '화랑세기' 의 진위를 떠나 김대문의 화랑세기는 1989년 우리나라에 첫 공개된 후로 역사학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곧 이어 진위논쟁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사학자, 국어학자, 무예가 등)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고, 일본 왕실 도서관 어느 구석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현재까지 공개한 목록에는 없다)되는 진본이 나오기까지는 필사본(...위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진본이라고 보는 정통사학자들은 고대 신라사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은 극작가들과 소설가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한자의 원문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종욱의 '대역 화랑세기(소나무)' 를 주로 참조하여 대역 원문을 인용하면서 왕과 후, 그리고 그 왕실을 추종한 화랑도들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약 1,500여년 전의 '신국(神國) 신라'로 '화랑세기' 를 타고 여행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현대의 성성관념이나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시대 성성 가치관에만 얽매이지 말고,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 포인트) 한인회 사관들이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후원

2015년 12월 5일(토) 오후 3시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人

泳(영)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 26.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영결식에는 손명준(86) 여사와 함께 장녀 혜영(63), 차녀 혜경(61), 장남 은철(59), 차남 현철(56), 삼녀 혜숙(54) 등 온 가족이 함께 했었다.

온 가족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2011년 김 전 대통령과 손 여사의 ‘결혼 60주년’ 기념 회혼식 이후 4년만이었다.

장남 은철씨는 그동안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김泳삼 전 대통령은 1982년 은철씨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당시 상도동에 가택 연금돼 있던 김 전 대통령에게 신 군부가 “결혼식에는 갈 수 있다” 고도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이 내가 자유로운 몸이라고 잘못 알게 될 것이냐” 며 거부했었다.

이후 은철씨는 미국에 건너와 사업을 했었다.

외모와 성품이 활달한 아버지를 빼 닮은 현철씨에 비해 은철씨는 성격이 차분한 편. 이번에 서울대 병원 빈소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었다.

한 관계자는 “몸이 아픈 은철씨가 주변에 누를 끼칠까 봐 상가에 가지 않았을 뿐 아버지의 임종부터 지켰다” 고.

세 자매는 모두 주변의 탄압을 피해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했기에 노출이 적었다.

이날 김泳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국회의사당에서 눈물 속에 엄수됐다.

9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이기도 했으니까.

영결식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泳삼 전 대통령의 개혁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별이셨다” 고.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김덕룡 전 의원 등 YS를 따랐던 ‘상도동계’ 인사들과 새정치연합 권도갑 상임고문, 김옥두, 이훈평 전 의원 등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고동계’ 도 참여했었다.

그런데 김泳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56) 씨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정계를 흔들고 있다.

김현철씨는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의 발인 예배에서 “지금 현재 민주화가 다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이 시점에 아버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통합과 화합’ 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고 했다.

이 “민주화 후퇴” 발언에 정치권은 신경을 세웠다.

김현철씨는 김泳삼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한나라당’ 과 ‘새누리당’ 공천에 세 차례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었다.

김泳삼 전 대통령도 아들 공천 탈락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칠퐀이’ 라고 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 온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토끼(김문수)가 사자(박근혜)를 잡는 격” 이라며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자 “그건 사자도 아니다. 칠퐀이” 라고 한 것.

김현철씨는 최근에도 박 대통령을 자주 비판했다.

체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보후슬라프 스포츠타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깜짝 선물’ 을 받았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체코의 소년 피아니스트 데니스 살보트(13)로부터 눈 올빼미

를 그린 그림과 한국어로 쓴 헌사(獻辭)를 전달 받은 것. 이 그림과 헌사는 역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화가 패트리 보바로바(35)가 그리고 썼다.

살보트는 지난 2014년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말로 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박 대통령은 “한국 방문이 동기 부여를 했다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꿈을 이루기를 기원하다” 고 격려했다. 청와대는 보바로바가 쓴 헌사를 공개했다. 보바로바는 박 대통령을 눈 올빼미에 비유, “눈 올빼미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곳을 살핀다” 며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싸늘한 눈보라를 일으키지만 자해로운 올빼미는 겨울 뒤에 항상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 했다. 이 여성은 또 “남쪽의 가지에서 꽃이 필 것과 같이 같은 뿌리에서 자란 북쪽 가지에도 꽃이 필 것이라는 것 또한(눈 올빼미)는 안다” 며 “한반도에 꽃이 활짝 피는 봄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했다.

泳 영: 潛行水中 - 해엄칠 영. 그래서 ① 泳 = 水 물 수. ② 영 = 長也 장야 - 길 영.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물속에서 길게 오래도록 해엄친다” 는 뜻. 얼마나 오래 해엄쳐? “영원히...” .

무슨 물이 영원히 흘러?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 요한복음 4:13, 14.

해서 泳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永生)을 공급하시는 물 곧 육체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물’ 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혼의 물’ 의 원천이심” 을 그린다.

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But he who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 요한복음 6:57, 58 끝부분.

김泳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영전’ 대신 ‘김영삼 장로’ 를 영구(靈區)에다 덮어 매장을 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예수님 믿는 영혼은 바로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어서다” .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이라라” : “For the Lamb at the center of the throne will be their Shepherd; He will lead them to springs of living water.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 - 요한계시록 7: 17.

지금은 김泳삼 장로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 세상에서 흘리던 모든 눈물을 닦으면서 감사와 찬송 예배를 드릴테지... 아멘 (Amen)!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한국에서 선봉적 인기를 끈 제품

전원스위치, 볼륨디지탈, 숫자버튼, 비상연락 버튼, 연속듣기, 전국, 미권주파수, 할리우드급기, 재생/ 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할리우드급기,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 숫자버튼을 이용한 호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톤, 노로복, 넷트, MP3플레이어용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응답 가능
- 할리우드 리모콘을 통한 음질제어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와 호환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체음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로복
• 성경 송방파

\$69

(기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백집)

\$79

(기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월 \$ 24.99

프리미엄 무제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0) 최근 결과에 의한 투자

일반 투자자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상승하는 시장에선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저금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려가는 시장에선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한 것을 후회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시장이 상승하면 외국주식에 투자한 것을 후회합니다. 반대로 외국주식이 상승하면 국내에 투자한 것을 후회합니다.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도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채권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고 채권시장이 상승하면 주식에 투자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래저래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실제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락한 투자를 팔아서 상승하는 투자로 옮긴다는 것은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라 실제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연말에 재정문서를 받아봅니다. 일 년

동안 각 투자종목의 수익률이 함께 발표됩니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종목을 팔아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로 옮겨갑니다. 미래에도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간에 발생한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투자자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즉 탑(Top) 10%에 속했던 뮤추얼 펀드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수익률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10년 동안 계속 탑 10% 근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탑 10%를 기록한 뮤추얼 펀드중에서 10년중 어느 한 해에 수익률이 밑바닥(bottom) 50%에 속했던 펀드가 무려 100%가 됩니다. 이 말은 10년 결과를 볼 때 탑 10%에 속하는 놀라운 실적을 내었지만 10년 중 한 번은 수익률이 매우 낮았

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저조했던 수익률에 실망하고 뮤추얼 펀드를 팔았다면 10년 동안에 기록한 높은 수익률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탑 10%에 속했던 펀드를 더 자세히 살펴해보았습니다. 10년 중 두 번이나 밑바닥 50%에 속했던 뮤추얼 펀드는 9%였습니다. 10년 중 세(3) 번은 밑바닥 수익률을 낸 뮤추얼 펀드가 80%가 됩니다. 이 말은 투자했던 펀드가 10년 중 3번(어느 3년)이나 밑바닥 수익률이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10년 후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뮤추얼 펀드도 어느 해에 그것도 10년 중 서너 번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저조할 때, 그때 일어난 상황에 의해서 팔고 나았다면 10년 후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단기간 실적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델타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

률은 11.1%였는데 일반 투자자가 받은 수익률은 단 3.7%였다고 합니다. 머리(?) 써서 투자 종목을 이리저리 옮겨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시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마음의 감정이 항상 우선합니다.

2015년은 투자자에게 어려운 한 해입니다. 외국 주식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자율도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채권시장도 어렵습니다. 어디에 투자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투자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투자방법이 제대로 하는 투자라고 확신하면 단기간에 일어나는 상황에 마음 불안할 것 없습니다. 인내심과 함께 장기투자하면 좋은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경기 회복에 따른 상용건물 수요 급증

고용시장 성장으로 사무실, 공장, 창고 증가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 부문에 걸쳐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는 올 초 발표한 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사무실과 상용 건물 부문에서 걸쳐 공실률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실률은 업무용 빌딩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건물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R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의 열쇠는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늘어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간 경제가 약 2.5% 성장하며 소폭의 고용창출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신으로 그 동안

신규 고용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다시 고용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 및 고용이 확장되면 사무실 건물의 경우 향후 1년간 공실률이 약 0.1% 포인트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약 0.4%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NAR는 예측했다.

경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높이는 제조업체가 늘고 국제 교역량 증가로 창고 및 공장 건물에 대한 수요 전망 역시 매우 밝다. 반면 수년간 강한 회복세를 탔던 아파트 등 다가구 임대 주택 부문은 서서히 부진이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신축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향후 1년간 약 0.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상용 건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물 임대 시장은 여전히 세입자의 선택폭이 좁은 건물주 위주의 시장이 예상된다. 임대시장 회복 초점이 나타나자 기존의 세입자는 임대계약 갱신을 서두르는 한편 신규 세입자는 장기리스 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료가 더 오르기 전에 현재 임대료 수준으로 기존의 임대계약을 장기 갱신하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수요 급증에 따라 투자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다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매물 한 채에 수십명의 투자자가 몰리는가 하면 여러 은행이 대출을 하겠다고 줄을 섰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출규정이 엄격해져 과거와 같은 거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금융 위기 전과 같이 무분별한 상업용 대출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정에 따라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거품 요인을 제거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경제 여건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글로벌 경제둔화로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 무역적자가 불가피한데 결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된다.

또한 금리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업용 부동

산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입 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100세 동반자 베델헬스전자

Fuji 의료기 판매의자
50년 이상
미국 FDA 승인
품질보증

Happy Thanksgiving

" 마사지체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의료기업입니다
50여년간 개발된 명품 안마의자를 체험하시고 선택하세요 "

마사지체어 추수감사절 대세일

이제 마사지체어는 온가족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성능을 꼭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세요

마사지체어구입시
발맛사지기
무료 증정

단체 선물용 소형안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상주로
(Part & Labor)
최대 7년 / Full Warranty

INADA 미용부공식 대리점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맛사지체어 판매개시

Dream Wave
Massage Chair



Inada Flex 3s
Massage Chair



~~\$7,999~~
\$4,999
Made in Japan

Fuji Cyber Relax
FJ-3650B



90개월
\$80/월
3년 Warranty

조각이 간편하여 호도 선풍로
개발된 신기술, 4개의 마사지 롤로
강력한 전신 마사지 제어

Fuji Cyber Relax
EC-3800



90개월
\$120/월
3년 Warranty

세계최초 4D 방식 로컬링 마사지 기법
동영상실 시보용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맛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Fuji Cyber Relax
ZERO-B
FJ-4600B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3D 방식 배근, 일본, 중국, 한국 전문 마사지
기법, 한국안마에 가장 인기 많은 제품

Fuji
Cyber Relax
FJ-5500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L자형 마사지 기법, 허리부터
앞다리까지 마사지 롤이 가동됨

Panasonic
EP-MA73



90개월
\$125/월
3년 Warranty

ULTRA 3D 방식, 다각도 마사지를, Mud
Heat 기법, Hot Stone 치료기법

Panasonic
EP-MA70



90개월
\$110/월
3년 Warranty

3D 방식 배어 마사지가별과
스프레이팅 기법

Body Slimmer
Special Sale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in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7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입구 높이
조절가능



특별세일
\$600 ⇒ \$450

베델전자
한남제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888-809-1167

하이트론스
H 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417-5350 / 201-941-0024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2월 첫째주)

● Re-Entry Permit

몇 년 전 2년 간 미국 거주 의무를 유예 해 주는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신청에 biometrics 과정 (지문채취, 사진 촬영 등) 이 새롭게 신청요건으로 추가됐 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지문채취까지 약 6-8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출국을 하 시거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며 칠밖에 안되는 분들에게는 큰 불편이 되어 왔습니다.

우선,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의 나이가 14 세 미만이거나 79세 이상인 경우엔 bio-metrics 가 면제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에 서의 biometrics 의 목적은 지문채취보다 는 신청자의 사진촬영이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에 여권복사본을 첨부하시면 bio-metrics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서의 심사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14세 이상 79세 미만인 신

청인들은 biometrics 과정을 거쳐야 합니 다. 아래는 몇가지 biometrics 과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Biometrics 공지서는 Biometrics 를 받 으실 날짜와 장소(거주하고 계신 곳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를 지정해 줍 니다. 하지만 빨리 출국을 하시거나 그때 까지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공지 서가 정한 날짜가 아니라도 Biometrics 를 받으실 장소에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 다. 단, 반드시 Biometrics 공지서를 가져 가셔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들 (출국날짜가 찍힌 비행기표, 근무증명서, 입대증 등등) 을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급행신청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때 Biomet-

rics 공지서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 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 셔야 합니다.

- 서비스 센터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 에 전화로 Biometrics급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입국허가서가 제출되고 신청서 번호를 발급받으신 후에만 가능합니다.

● STEM OPT 연장

이민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준비는 빠르 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에 쫓 기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생각 지도 않았던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시작해서 낭패 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기존의

OPT (12개월) 에서 STEM OPT로 연장 (17개월 추가연장) 하는 신청서가 기존/처 음 OPT 가 만료되기 131일 전에 신청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각사유는 신청인의 STEM OPT 자격조 건을 갖추기 (처음 OPT 가 만료되는 시점) 120 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도 이 기각사유가 적절한 법조 항을 적용했는지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확 인 중입니다. 아무튼 STEM OPT 를 고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신청하시지 말기 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상해] Police Report (2)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 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 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입니다. 교통사 고가 나면 당황을 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가족 혹은 친구 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 지만, 사고가 난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교통사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 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인 Police Report는 보험청구를 하는데도 필요하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Police Report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사고상해] Police Report (계속)

만약 응급상황이라 도저히 경찰의 출동 을 기다릴 수 없다면 상대 운전자의 정보 를 받아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에 있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 차후 교통사고 보상 처리에 중요합니다 . 가끔씩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 상 대 운전자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를 미리 적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Police Report에 사고에 관한 내 용이 정확하지 않게 기록되었다면, 선임하

신 변호인에게 그내용을 전달하시어 Po-lice Report가 정확히 수정될 수 있도록 진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많은 교통사고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Police Report가 한 운전자만의 진술을 토 대로 일방적인 사고 상황을 포함하는 경우 , 사고를 낸 차량을 거꾸로 바꾸어 놓아 마 치 책임이 사고 피해자에게 있게 보이도록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을 종종 접 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진술 및 사고 경위 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경찰에게 통보하여 수정된 Police Report로 추후 소송을 대비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 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 으 면 주 저 마 시 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 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생선가게 연매상 \$500,000 변화한 플라자 성업중인 가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9(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1.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일처리

각종 경시대회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